

2026 스위스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9
가. 정부 현황	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9
3. 주요 이슈 Pick	17
가. (경제/외교) 미국, 스위스에 39% 관세 부과	17
나. (에너지/산업) 신규 원전 허용을 위한 원자력법 개정(초안)	18
다. (보건/사회) 스위스, 고령화 심화로 보건 지출·보험료 부담 증가	19
라. (외교) EU-스위스 양자 협정 변화 및 관계 재정비	20
마. (디지털/산업) AI·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과 규제 정합화	21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4
가. 시장 특징	24
나. 무역	28
다. 산업	38
라. 투자	41
2. 유망 산업	44
가. 제약 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 헬스	44
나. ICT·AI·사이버보안·로보틱스 등 디지털 전환	48
다. 에너지 인프라 안전 및 설비 현대화	50
3. 협력 기회	55
가. 통상·G2G	55
나. 프로젝트	55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7
2. 진출전략	5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7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7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7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79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3. 주요 이슈 Pick	17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2026년 스위스 경제 회복세 제한 전망

- 스위스연방경제청(SECO)는 '26년 스위스 경제성장률 1.2% 전망('25.6.16. 발표 기준)
 - 스위스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로 과거 30년 평균 성장률(1.8%) 대비 큰 폭으로 하락 예상
 - '25년 하반기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26년 상반기까지 회복세 제한 전망으로 '26년 상반기까지 회복세 제한 전망
- * IMF 전망 '26년 1.3%

□ (호재 요인)

- 저물가 환경 지속
 - '25년 평균 인플레이션율 0.1%, '26년 0.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실질소득 안정에 따른 민간 소비 기반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내수 및 건설투자 회복세
 - 저금리 기조와 주거 수요 확대가 건설 투자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되며, 내수 중심 성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화학·제약 산업 호조세
 - '25년 1분기 GDP 성장률 1.3% 중 약 0.7%를 화학·제약 산업 수출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수요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 지속 실현 기대
-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
 - 세계무역기구(WTO)는 '26년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또한 '26년 하반기 이후 수출 및 설비 투자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25.8.8. 세계무역기구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25.6.10. 세계은행 "Global Economic Prospects" 발표 기준)

□ (부진 요인)

- 국제 교역 둔화 우려
 - 미국과의 관세(39%) 정책으로 '26년 수출 증가율은 0.4%에 그칠 전망('25.6.6. 스위스연방경제청, SECO 발표 기준)
- 스위스 프랑 강세 영향
 - 달러(USD)/프랑(CHF) 환율이 '25년 대비 4.1%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조업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이 평균 1.8% 하락할 전망
- 설비 투자 부진 전망
 - '26년 상반기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은 '25년 1.1%에 비해 '26년 0.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리히연방공과대학 경제연구소(KOF)의 경기지표에 따르면 '25년 92.1에서 '26년 88.4로 하락 전망('25.9 취리히연방공과대학 경제연구소 KOF, "Swiss Economic Institute, KOF Economic Forecasts 2025~2026" 발표 기준)
- 고용 시장 약화
 - 실업률은 '25년 2.9%에서 '26년 3.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용 둔화 현상은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 의존도 높은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질 전망
- 내수 소비 감소 위험
 - 설비 투자 부진과 고용 시장 약화의 영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소비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지정학 및 정책 리스크
 - 세계은행(World Bank)의 Commodity Markets Outlook('25년 4월)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25년에 약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가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8.55	8.61	8.67	8.74	8.81	8.88	8.95	9.10
명목 GDP	십억 달러	721.8	739.0	799.7	807.2	869.6	938.74	947.13	990.52
1인당 명목 GDP	달러	84,473	85,872	92,239	92,371	98,767	103,670	104,896	108,929
실질 성장률	%	1.2	-2.5	4.2	2.1	0.8	1.3	0.9	1.6
실업률	%	2.3	3.2	3.0	2.2	2.3	2.3	2.8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	0.4	-0.7	0.6	2.8	2.4	1.5	1.2	0.5
재정수지(GDP 대비)	%	1.3	-3.0	-0.5	0.2	0.4	0.5	0.3	0.2
총 수출	백만 달러	314,131	319,310	380,194	400,693	419,982	446,840	N/A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3,683	3,127	3,644	3,775	3,575	4,045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277,818	291,972	324,069	357,115	365,614	362,136	N/A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69	1,057	2,244	2,324	2,843	2,231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36,313	27,338	56,125	43,578	54,368	84,704	N/A	N/A
경상수지	백만 달러	28445	3123	63300	79438	67542	47,458	47,744	51,898
환율(연평균)	현자금/US\$	0.9937	0.9381	0.9143	0.9550	0.8988	0.8801	N/A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61.74	-361.52	-191.20	-740.20	1,049.54	251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058.07	-1,627.04	10.16	-432.48	-21,394	-60,708	N/A	N/A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Global Trade Atlas, 스위스국립은행(SN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stat)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서비스업 성장에도 둔화세 뚜렷, '25년 스위스 GDP 성장률 1.2% 전망('25.8.28. 스위스 연방경제청, SECO 발표 기준)
 - '25년 1분기의 강한 성장세 이후 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 '2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쳐 1분기의 0.7% 성장 대비 큰 폭의 둔화세를 기록
 - 서비스업 부문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6%로 감소, 제조업 및 수출 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
 -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스위스 수입 관세 인상(최대 39%)으로 '25년 8월부터 스위스 산 일부 수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이에 따라 2분기 제약 및 화학 산업 부가가치는 전분기 대비 4.8%, 제조업 전체 2.4% 감소('25.8.28. 스위스연방경제청, SECO 발표 기준)
 - 스위스연방경제청(SECO), '25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2%로 하향 조정
 -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뿐 아니라 유럽 경기 둔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 대외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

- (소비) 서비스 중심 소비 완만한 회복, 민간 소비 전년 대비 1.6% 증가('25.8.28. 스위스연방경제청, SECO 발표 기준)
 - '25년 2분기 실질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며, 1분기의 0.2% 성장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 유지
 - * '25년 2분기 숙박 및 외식 서비스 지출은 전분기 대비 1.5%,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은 전분기 대비 0.3%, 운송 및 통신 서비스 지출은 0.1% 증가해 소폭 개선됨.
 - 식품품 및 내구재 소비는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 금융·보험 서비스 부문은 수수료 수익 감소로 0.2% 하락
 - '25년 2분기 정부 지출은 전 분기 대비 0.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공공부문 지출 확대가 민간 소비 둔화를 일정 부분 보완한 것으로 분석
- (민간 투자) 설비 투자 급감 속에 건설 중심 완만한 증가세, '25년 고정자본 형성 2.2% 전망
 - '25년 스위스 민간투자는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을 보임
 -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는 '25년 2분기 전분기 대비 0.8% 감소하며 1분기의 0.8% 증가에서 감소 국면으로 전환
 -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관세 인상, 수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의 보수적인 신규 설비투자 계획과 항공기·R&D 부문에서의 대규모 조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25년 2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
 -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 인프라와 기술 혁신 중심의 투자가 성장세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
- (산업 생산) 제조업 부진에도 서비스업 성장으로 일부 상쇄, 2분기 제조업 부가가치 전분기 대비 2.4% 감소
 - '25년 2분기 산업 생산은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진 반면, 서비스업이 일부 성장을 유지함. 제조업 부가가치 전분기 대비 2.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
 - 제약 및 화학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분기 대비 4.8%, 정밀기계·기계류는 2.1%, 고급시계·귀금속 산업은 0.5% 소폭 증가
 -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유지. 무역 서비스 1.9%, 숙박·외식 1.5%, 기업 서비스 0.5%, 공공행정 1.2% 증가, 금융·보험 서비스는 수수료 수익 감소로 0.2% 소폭 하락
 -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전분기 대비 0.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로 인프라 중심의 안정적 흐름 유지
- (대외교역) 수출입 큰 폭 감소, 상품 수출은 4.7% 감소, 수입은 6.6% 증가('25.8.27. 스위스연방경제청, SECO, '25.7.17. 스위스 언론사, Swissinfo 발표 기준)
 - '25년 2분기 수출입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 상품 수출 전분기 대비 4.7% 감소, 수입은 6.6%로 감소, 서비스 수출은 2.1%·수입은 0.1%의 미미한 증가 흐름 유지

- 다만 전년 동기 대비는 상품 수출은 2.7%, 수입은 2.4% 증가, 서비스 수출은 1.2%, 수입은 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투자 유입) 스위스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감소세 지속
 - 스위스의 외국인 투자 유입 규모는 '22년 632억 스위스 프랑(CHF)에서 '23년 491억 스위스 프랑(CHF)으로 감소세 지속('24.10. 스위스중앙은행, SNB'Direct investment 2023'발표 기준)
 - 주요 투자 유입 국가는 유럽 내 다국적기업 본사가 집중된 국가들로, 특히 스위스를 글로벌 지주회사(Holding) 거점으로 활용해 온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짐
- (투자 진출) 스위스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은 글로벌 분산 투자 기조 유지
 - 스위스의 대한민국 투자는 '22년 2억 6,000만 달러로 큰 폭 증가(162%)했으나, '23년 1억 7,200만 달러(34.3% 감소), '24년 8,400만 달러(51.1% 감소), '25년 2분기에는 1억 3,600만 달러로 반등
 - 반대로 한국의 대스위스 투자 진출은 '22년 1억 2,400만 달러로 급증(130%) 했으나, '23년 2,100만 달러(83% 감소), '24년 2,300만 달러(9.5% 증가), '25년 1분기 1,1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는 등 감소세

2. 정치(정책) 환경

- 합의제 연립정부 체제로 안정적 정치 환경을 유지하며,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강화
- EU-스위스 패키지 협정과 FTA 확대, 탄소중립 전환 정책이 단일시장 접근성 확대 및 신산업 기회 창출로 이어질 전망
- 동일노동 동일임금, 디지털·데이터 규제, 의료기기 등록 의무화 등 제도적 요구는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비용·행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제도 정착 이후, 시장 규칙의 명확화 및 신뢰 기반 경쟁 질서 확립을 통해 품질·인증 기반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 형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가. 정부 현황

□ 3단계 국가 권력 분산, 7개 정당 연립 체제, 합의제 기반의 국정 운영

- 스위스는 7명으로 구성된 연방 평의회가 집단 국가원수 및 행정부 역할을 수행, 주요 정당 간 권력 분점 구조 유지
 - 연방 대통령은 7명 평의회 위원 중에서 매년 순환제로 선출되며, 국정 운영은 합의제·분권제 원칙에 따라 특정 정당에 집중되지 않고 합의 기반으로 진행
 - * 직접민주주의 제도(국민투표, 국민발의 등)가 강하게 작동하여 의회·행정부의 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구조
 -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이 다단계 합의를 필요로 하여 속도와 집행력 면에 서는 조율이 요구되는 특성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대외 경제 정책

- EU-스위스 관계 정상화 및 패키지 협정
 - '25년 5월, EU-스위스 패키지 협정 가서명, 10월까지 공청회 진행
 - 협정 주요 내용은 △ 기존 분야(육상 및 항공 운송, 제품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인적 이동의 자유 등)에서 상호 내부 시장 참여를 보장, △ 전력 공급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 △ 보건 분야 협력 강화, △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포함
 - 협정 이행 과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근로자 신분증 제도 도입으로, 스위스 내 인력 활용 기업의 법적 준수 부담 확대 요인

- 단, 우리 기업이 제품·부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지 파트너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 '25년 7월 타결된 EFTA-메르코수르 협정을 통해 전체 품목의 약 95% 관세 철폐 및 남미 2.7억 인구 시장 접근성 확대 기대
 - '25년 10월 발효 예정인 EFTA-인도 협정은 16년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기계·제약·화학·서비스 분야에서 관세 및 투자 장벽 완화 효과 기대

EU-스위스 패키지 협정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자유이동	EU 법규를 동적 정합 방식으로 도입해 EU 및 스위스 근로자·자영업자 간 거주·취업·서비스 제공 자유를 확대하는 체계 마련. 단기 서비스 파견(90일), 사회보장 연계, 가족 동반 허용 등을 포함
항공	스위스와 EU 간 상호 카보타주 권리 확대를 포함하여, 양측 항공사의 국내선 운항 자유화 범위 확대, EU 기준 항공 안전·환경 규제 정합화, 국가보조 의정서 신설을 통해 양측 항공사 간 경쟁 조건 균등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
육상운송	국제 여객철도 국경 간 카보타주 운행 명확화, EU 운송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국가보조 통제 체계 도입으로 EU 운송사와 동등 경쟁 환경 보장
상호 인정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인증 절차의 EU 규정 정합화 추진. 인증기관 지정, 시험·검사 절차 및 사후 감시 강화. EudraGMDP 등 EU 데이터베이스 접근 허용
전기	스위스의 전력 시장에 대한 EU 규제 동적 정합 적용. 재생에너지 통합, 시장 결합, 계통 안정성 강화, 장기 용량 예약 및 투명성 규정 포함
식품안전	스위스-EU 공동 식품안전 지역 구축. EFSA, RASFF, TRACES, ADIS 등 EU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접근 가능. 기존 SPS 부속서 폐지, EU 수준의 검사·인증 체계 일원화
농산물 무역	기존 SPS 부속서 삭제 및 식품안전 협정으로 통합. 농산물 교역 규제 체계 단순화 및 분쟁 해결 절차 EU 기준에 맞게 재정비
보건	EU4Health 프로그램 및 ECDC(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참여 허용. 전염병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체계(EWRS) 접근 가능
EU 프로그램 참여	Horizon Europe, Euratom, Digital Europe(일부 제외), Erasmus+ 등 EU 프로그램 참여 재개. 2025년 1월 1일 소급 잠정 적용 가능, Erasmus+는 2027년부터 적용
결속기금	특별기여 및 정례 기여금 체계 확립, 기여금 사용 분야는 EU-스위스 공동 합의(MoU)로 설정, 주로 그린 전환 및 디지털화 분야 집중
우주 프로그램	EU 우주 프로그램 기관(EUSPA) 참여 허용, 2026년 1월 또는 서명 이후 잠정 적용 가능
의회 협력 의정서	스위스 연방의회와 유럽의회 간 고위급 대화 채널 설치. 입법 과정 및 제도 집행 협력 강화
임금 보호 및 국내 보완 조치	패키지 협정 발효에 맞춰 스위스 국내법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보완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건설 현장 근로자 ID 카드제 도입, 고용 개시 사전 통지, 원정의 하도급 연대책임, 불시 점검 강화 등을 포함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CO₂법 개정 및 항공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의무화
 - '25년 1월 개정 CO₂법* 발효, 5월 시행령을 통해 세부 규정 확정, '30년까지 스위스의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 전환 정책 본격 추진
 - 항공 부문에서 SAF** 혼합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항공기후기금(Aviation Climate Fund)***을 신설하여 항공사·공항 운행사·연료 공급망 기업의 SAF 조달 및 저탄소 인프라 투자 재원을 지원
 - 전력망 확충, 에너지 저장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운송 전반의 저탄소 인프라 투자 촉진 정책 병행
- * CO₂법 : 스위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 '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을 법제화
- **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 바이오매스·폐기물·합성연료 등을 활용해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 연료
- *** 항공기후기금(Aviation Climate Fund) : SAF 보급 확대 및 항공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설된 기금으로, 공항 인프라·저탄소 연료공급망·저배출 항공기 기술 투자에 활용
- 에너지 전략 2050 개정 및 에너지 믹스 다변화 추진
 - '17년 발효된 'Energiesstrategie 2050'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한 국가 전략으로, '25년 개정안을 통해 개정·보완
 - 개정 전략은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전력망 현대화 △ 산업·운송 부문 저탄소 전환을 중점 추진하며, '35년까지 신규 재생 35TWh(주로 태양광), '50년 45TWh 확대 목표를 법제화
 - 한편, 스위스 연방 평의회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금지 조항 해제를 골자로 한 핵에너지법 개정 초안을 제시, '기후 친화적 전력'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활용을 정책 옵션으로 포함
 -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 확대와 함께, 에너지저장설비(ESS)·스마트그리드·수요관리 기술 등 전력 안정화 솔루션 도입을 강화하는 정책 병행

□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정책

- 'Digital Switzerland 2030 전략' 추진
 - 스위스 연방정부는 'Digital Switzerland 2030' 전략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강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 공공·민간·학계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 중
 - 해당 전략은 매년 말 연방 평의회가 다음 해의 추진할 목표를 선정·발표하는 구조로, 각 연도별 국가 우선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 일반적으로 연간 2~3개의 추진 목표를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기술·사회·경제적 영향도, 법·제도 정비 필요성, 공공서비스 혁신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
- '24년 12월, 연방 평의회는 'Digital Switzerland Strategy 2025'를 채택하며, '25년 우선 추진할 목표로 △ AI 규율 및 행정 적용(AI 활용 가이드라인 및 공공행정 적용 확대), △ 사이버보안 강화(국가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및 중요 인프라 보호), △ 오픈소스 활용 촉진을 선정(공공·민간부문 오픈소스 기술 적용 및 표준화) 등 3대 포커스 테마 선정
- 디지털 신분증(e-ID) 법안 및 도입 예정
 - '23년, 연방정부 e-ID 법안(Federal Act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Services) 제시, 동년 의회 승인
 - '25년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이 50.4%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시행령 마련 후 '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새 법안은 연방정부 발급·선택적 사용·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원 인증 절차를 단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 데이터 최소화, △ 분산형 저장, △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
 - 공공행정·전자상거래·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구조 개편 및 e-ID 기반 인증 체계 구축 필요

* 참고 : '21년, 1차 법안은 민간 주도 운영 모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64.4%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 주도 체계로 재설계됨
- 사이버 사고 24시간 보고 의무 도입
 - '25년 4월 1일부터 중요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법에 따라 에너지, 금융, 교통, 통신, 헬스케어 등 10개 주요 산업 및 관련 공급망 기업에 대해 사이버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의무 보고 체계 도입

* 참고 : 스위스 사이버 보안센터(NCSC) 안내 링크 : <https://www.ncsc.admin.ch/ncsc/en/home/aktuell/im-fokus/2025/meldepflicht-2025.html>

 - 해당 분야와 거래하는 IT·설비 기업, 설비 공급 기업, 솔루션 공급 기업은 계약서상 보안 규정 강화,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로그 관리 및 감사 절차 정비 필요
 - 국경 간 데이터 활용 및 AI 윤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스-유럽 간 데이터 거버넌스 정합화 논의 병행 중
- e-커머스 VAT '플랫폼 과세(Deemed Supplier)' 시행
 - '25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의제 공급업체(Deemed Supplier)*로 지정해, 스위스 내 B2C 전자 상거래에서 VAT 징수·신고·납부 의무 직접 수행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시 플랫폼이 VAT 절차를 대행하지만, 스위스 내 오프라인 방식으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 의무를 유지
 - 연 매출 10만 스위스 프랑(CHF) 이상 기업은 스위스 세무당국(FTA, Federal Tax Administration)에 부가가치세 등록 필수

* 의제 공급자(Deemed Supplier) : 온라인 플랫폼 또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실제 판매자와 동일한 '공급자'로 간주해 세금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규제 정책

- 스위스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Swissdamed) 구축 및 UDI 등록 의무화
 - 스위스는 EU 의료기기 규제(MDR*/IVDR**)와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구축·운영*** 중
 - *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 EU의 의료기기 규정(2017/745/EU). 안전성과 성능 기준, 임상 평가, 추적성 등을 엄격히 규정한 법률
 - ** IVDR(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 EU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2017/746/EU). 체외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예 : 혈액 검사 키트, COVID-19 진단키트 등)에 적용
 - *** 참고 : 사용 가이드 및 등록 방법 안내 : [https://swissdamed.ch/\[PDF\]file:///C:/Users/jinhe/Downloads/BW630_40_841e_HB_swissdamed_User_Guide_UDI_Devices_Module.pdf](https://swissdamed.ch/[PDF]file:///C:/Users/jinhe/Downloads/BW630_40_841e_HB_swissdamed_User_Guide_UDI_Devices_Module.pdf)
 - '24년 11월부터 제조사·수입업체·대리인 등 경제주체 등록 모듈이 개통되었으며, '25~'26년에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제품 등록 모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 등록 과정에서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부착 및 Swissdamed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스위스 내 유통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UDI 코드 부여 후 데이터베이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도입 일정은 '25년 8월 제품 등록 자발적 개시, '26년 7월부터 의무화, '26년 연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 Swissdamed는 EU의 EUDAMED** 모듈 구조를 반영했으나 데이터 연동은 불가능, 스위스 기업 및 해외 제조사는 Swissdamed에 별도 데이터 업로드 수행
 - *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 국제 표준화된 의료기기 고유식별체계. 기기별 고유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부여해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추적 가능하게 하는 제도
 - **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 : EU 의료기기 등록 데이터베이스
- 의료 데이터 디지털화(DigiSanté 프로그램)
 -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 의료체계의 디지털화 수준이 다른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DigiSant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연방내무부(DFI)와 연방공중보건청(OFSP)이 연방통계청(OFS)과 협력하여 수립한 것으로, 'Digital Switzerland' 전략의 보건 분야 실행 과제에 해당하며, '25~'34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

- DigiSanté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과 더불어 연구 및 산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치료 품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 보건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견인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지님
- 주요 추진 과제는 △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확립, △ 공공 당국 서비스 디지털화, △ 데이터의 2차 활용 촉진과 같은 네 가지 축으로 구분

□ ESG관련 정책

- 스위스 ESG 정책 추진 체계
 - 스위스 ESG 프레임워크는 연방정부·국민투표·감독당국(FINMA) 등이 함께 주도하며, 기업·금융·공공부문 전반에 확산 중
 - EU 규제(CSRD, CSDDD, SFDR 등)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스위스 고유의 금융·조달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

'26년, 스위스 ESG 관련 주요 정책

E(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혁신법 • 금융기관 기후 관련 보고 의무 • 스위스 기후 스코어 • 공공 연기금 투자 지침 • 기후주장·그린워싱 규제('26년 신설)
S(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스위스 국가행동계획 • 비재무정보 보고 조례 • 분쟁광물·아동노동 실사 투명성 조례 • 자원채취기업 투명성 의무
G(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정보 공개 지침 • 상장 주식회사 과도한 보수 제한 • 양성평등법

자료: 스위스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 환경(E) 부문 정책 및 기업 사례
 - (기후 보호·혁신·에너지 안보법) 연방·주 정부는 '25~'30년 기간 동안 기업의 전환 투자에 총 12억 스위스 프랑(CHF) 지원을 확정함('23.6.18.). 지원 신청 시 '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배출 경로, 투자 계획 포함)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기업의 지원·입찰 단계에서 투자 계획과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절차가 표준화되고 있음
 - (스위스 기후 스코어) 연방의회가 금융기관들이 투자 상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으로 '23년 개정 이후 '24~'25년 보완된 세부 기준에는 화석연료 투자 비중,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탄소중립 약속의 신뢰성 등이 추가됨.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투자심사 지표로 확산되는 중

- (금융기관 기후위험 관리)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은행·보험사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새 감독 지침을 마련 중이며, 녹색 분류와 관련한 허위 과장 홍보(그린워싱)를 제한하는 기준을 구체화
- (공적연기금 투자 지침) 스위스연기금협회(Schweizerischer Pensionskassen-verband, ASIP)는 EESG 기본 보고 기준을 개정하여 투자 제외, 주주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활동을 정량·정성지표로 공시하도록 권고. 운용사의 보고 체계 충실도를 조달 평가의 핵심적 기준으로 반영

스위스 환경(E) 부문 기업 사례

기업명	산업 분야	추진 내용	성과 및 특징
미그로 (Migros)	유통·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매장,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 전면 배제 • 폐열 회수 및 자연 냉매 사용 확대 • 태양광(PV) 설비 보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9년 대비 직접·간접 배출(Scope1,2) 약 60% 감축 • 그룹 차원의 기후기금(M-Climate Fund)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쿵 (Coop)	유통·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터·매장, 에너지 효율화 설비 확대 •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절감사업 진행 •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기후 보호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26년까지 직접 배출(Scope1,2) 감축 목표 제시
프리메오 (Primeo Energie)	전력·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수소저장·열펌프·건물에너지 관리 결합형 에너지 공급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부터 'Ecore One' 수소 기반 계절 저장 프로젝트 가동 • 계절별 수급 안정을 위한 통합형 전환 모델 제시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사회(S) 부문 정책 및 기업 사례

-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스위스 연방 평의회는 제3차 국가행동계획을 '24년 말 채택, 고위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 이행 수준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구 보급 및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있음
-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 대규모 공익법인은 환경·사회·노동·인권·부패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함. '24년부터 비재무보고서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다수 기업, 찬성률 98% 이상으로 통과
- (분쟁광물·아동노동 관련 실사 및 공시) '22년부터 주석·탄탈럼·텅스텐·금 및 아동노동 위험 제품을 다루는 기업은 공급망 추적·위험평가·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일정 기준 미만 기업은 예외를 인정 받으나, 고위험 품목 취급 시 보고서 제출이 원칙
- (자원채취기업 투명성 공시) 광물·석유·가스·원시림 목재를 채취하는 기업은 해외 정부기관에 연간 10만 스위스 프랑(CHF) 이상 지급한 세금·사용료·로열티 내역 공개 필수, 이 내역에는 이사회 승인과 온라인 게재 의무 포함

스위스 사회(S) 부문 기업 사례

기업명	산업 분야	추진 내용	성과 및 특징
네슬레 (Nestlé)	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아·커피 공급망의 아동노동 위험 관리 강화 • 공급업체 인권 실사 체계 도입 • 지역사회 교육·소득 개선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까지 전량 추적 가능성 확보 목표 • 'Salient Issues Action Plan ('23~'25)' 실행 •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동노동 대응 프레임워크 정착
린트&슈프링리 (Lindt & Sprüngli)	초콜릿·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코코아 농가와 협력 • 업계 농업 공동 프로그램(Lindt & Sprüngli Farming Program)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 보고서에 공급망 아동노동 대응 계획 공개 •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구조 확대
미그로 (Migros)	유통·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원료(팜유·코코아 등) RSPO*/UTZ** 인증 기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인권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 • 국제 인증 원료 사료 비중 확대

*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국제 인증 제도. 환경 파괴 최소화, 노동·지역사회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UTZ(Utz Kapeh) Certification : 원두·코코아·차 등의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환경보호, 아동노동 금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보장하는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18년 이후 Rainforest Alliance와 통합되어 운영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거버넌스(G) 부문 정책 및 기업 사례

- (기업지배구조 공시 지침)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 보수, 내부 통제, 주주권 등을 연차 보고서에 공개해야 함. '26년부터는 성별 대표성 관련 공시 항목이 강화되어, 미달 시 사유와 개선 방안을 반드시 명시
- (상장기업 보수 제한 제도) 과도한 보수·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23년부터 회사법에 편입되어 정착된 제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 보수 체계의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
- (양성평등법)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4년마다 임금평등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해당 제도는 '32년까지 유효

스위스 거버넌스(G) 부문 기업 사례

기업명	산업 분야	추진 내용	성과 및 특징
유비에스 (UBS)	금융·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보수 체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 변동보수·퇴직금 규율을 내부 정책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내역에 대해 연차 보고서·보수 보고서에 공시 • 시스템적 중요은행(SIB)으로서 보수규율 관련 사회적 감시 강화
시카 (Sika)	건설화학·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채취 관련 투명성 공시 의무 준수 • 해외 정부 납부 내역 보고·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승인 후 매년 납부 내역 보고서에 게재 • 온라인 공개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외교) 미국, 스위스에 39% 관세 부과

□ 개요

- '25년 8월, 미국 정부의 스위스산 수입품 대상 최대 39% 고율 관세 부과 발표
 - '25년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위스를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고 31% 관세 예고
 - '25년 8월, 미국은 스위스 수출품(시계·정밀기계·초콜릿 등)에 39% 고율 관세 부과 결정 발표, 제약은 일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향후 최대 250% 수준 관세 가능성 언급
 - '25년 8월, 스위스 수출액의 2/3를 차지하는 금과 일부 품목(1kg 단위)까지 관세 적용 확대
 - 스위스연방경제청(SECO)은 제약과 금을 제외한 스위스 수출의 약 10%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며, 스위스경제연구소(KOF)는 연간 GDP가 최대 0.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 스위스 기업 손실은 매출 약 95억 달러, 이익 약 40억 달러 감소로 예측되며, GDP 성장률은 '24년 0.7%에서 '25년 2분기 0.1%로 급격히 둔화. 실업률은 '25년 2.7%에서 '26년 3.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재추진을 위해 개선된 제안을 준비하였으나, 보복관세는 배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동시에 코로나19 시기에 검증된 노동 시간 단축제를 확대하여 고용 충격을 완화하려는 대응책을 병행하고, 협상 지속 의지 표명
- 스위스 주요 수출 산업 타격과 구조적 대응 전망
 - 미국 시장에서의 고율 관세 부담으로 스위스 수출 기업들이 아시아·중동 등 신흥 고소득 시장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
 - 시계·주얼리, 정밀기계·전기·금속(MEM) 산업이 직접적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서부 스위스 지역 산업 구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제약 산업은 별도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내 생산 확대, 로비 활동 강화, 장기 공급 계약 유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스 기업은 북미 생산 거점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의 대응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
 - 정밀기계·특수 소재·부품 분야 : 스위스 제조업의 대미 의존도 축소와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산 정밀 부품·소재의 납품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가 절감 압박에 따른 단가 경쟁 심화와 단가 계약 구조화 위험 존재

- 제약·바이오 산업 : 미국 내 생산 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원료의약품 및 바이오공정 장비 진입 가능성은 높으나, R&D 및 임상 협력 지연 및 투자 회수 기간 장기화 위험 상존
- 프리미엄 소비재(시계·초콜릿 등) : 아시아 고소득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 전략 속에서 한국 내 브랜드 협력 및 리테일 파트너십 확대가 예상되나, 소비 둔화 및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제약 요인 존재
- 금융·투자 부문 : 스위스 금융기관의 아시아 자본 시장 연계 강화로 한국 금융기관의 공동 투자 및 자산 운용 협력 기회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 노출 위험 존재

나. (에너지/산업) 신규 원전 허용을 위한 원자력법 개정(초안)

□ 개요

- '25년 8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해제를 골자로 한 원자력법 개정(초안) 제시
 -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17년 스위스 국민투표로 신규 원전 건설이 금지되었으나, '24년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화를 이유로 정부가 해당 조항 철회 추진
 - * 계속운전 :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을 검증한 뒤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
 - '25년 8월, 연방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해제를 골자로 한 '원자력법 개정 초안(Nuclear Energy Act)'을 제시
 - 개정안은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의 대규모 개보수·수명 연장을 허용하되, 스위스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ENSI)의 안전 기준 충족 및 국민투표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
 - 스위스 전력 수요는 '40년까지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 원전 폐쇄 이후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 제기
 - 원자력법 개정 논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여,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자립성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스위스는 현재 4기 원전 '베츠나우 1·2호기, 괴스겐, 라이프슈타트'를 운영 중(뮐레베르크 원전은 '19년 영구 정지)이며, 연간 약 23.1 T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 * 현재 스위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6% 해당

스위스 원전 현황

이름	설립연도	원자로 방식	출력
KKB 베츠나우(Beznau)-1	1969	가압수형	365 MWe
KKB 베츠나우(Beznau)-2	1972	가압수형	365 MWe
KKG 괴스겐(Gösgen)	1979	가압수형	1,060 MWe
KKL 라이프슈타트(Leibstadt)	1984	비등수형	1,285 MWe

자료: 스위스연방에너지청(SFOE)

- 에너지 안보 및 원전 기자재 수요 확대 전망
 - '25년 원자력법 개정(초안) 제시로 신규 원전 및 기존 원전의 대규모 개보수 가능성 부각. 이에 따라 정밀기계·특수 소재·배관·펌프·밸브 등 핵심 기자재 수요 확대 예상
 - 원전 안정성 확보와 효율 개선을 위해 디지털 계측·제어(I&C), 보호계전, 사이버보안, 상태감시·예지보전 솔루션 수요 증가 전망
 -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그리드 디지털화, 방사선 계측, 폐기물 관리, 품질 보증·추적성(QA/QM) 분야에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 존재
 - 기술 중립 원칙에 따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혁신 원자력 기술 진입 가능성 확대
- 우리 기업의 대응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
 - 원전 기자재·설비 분야 : 신규 건설 및 대형 정비 사업 확대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 및 엔지니어링 협력 기회 증가가 예상되나, 고도의 안전 규제와 국제 표준 충족 의무로 진입 장벽이 높음
 - 디지털 I&C·사이버보안 분야 : 노후 원전의 계측·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이상징후 감지 솔루션 도입 수요 확대에 따라 진출 기회 존재하나, ENSI 승인 절차와 기술 인증 부담이 리스크로 작용
 - 품질보증·규제 문서화 서비스 : IEC·ISO 등 국제 규격 충족을 위한 엔지니어링 문서화·QA/QM 솔루션 협력 기회 발생 가능하나, 시장 규모 제한과 입찰 경쟁 심화가 위험 요인
 - 정책·사회적 리스크 :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투표와 정치적 합의 과정에 좌우되며, 입법 지연·프로젝트 착수 지연으로 매출 인식까지 장기간 소요될 위험 존재

다. (보건/사회) 스위스, 고령화 심화로 보건 지출·보험료 부담 증가

□ 개요

-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보건의료 지출 증가 및 건강보험료 평균 8.7% 인상
 - 스위스는 '25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 '4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보건·사회복지 지출 구조 전반에 압력으로 작용
 - *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4세, 남성 81세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및 돌봄 수요의 구조적 증가 불가피
 - 보건 지출은 '24년 약 1,100억 스위스 프랑(CHF)에 달해 GDP 대비 약 12% 수준으로 OECD 평균(약 9%)을 상회. '25년 보건 지출 증가율은 약 3.5%로 예상('24.11. 취리히연방공과대학 경제연구소 KOF, 보도자료 "Healthcare expenditure rises to over CHF 100 billion" 발표 기준)
 - 스위스 경제연구소(KOF)는 의료비 지출이 향후 매년 3~4%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건강보험료(기본보험, KVG)는 '25년 평균 8.7% 인상, '26년에도 약 4% 인상이 예상되어 가계 부담 구조적으로 확대 전망
 - * KVG(Krankenversicherungsgesetz) : 스위스 건강보험법으로, 기본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되 보장 범위와 보험료 산정 원칙은 KVG에 의해 규제

-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 간호 인력 과부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가 결합하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논란 심화
- 연방정부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예방의학 강화, 서비스 통합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험제도 개혁 논의 병행
- 관련 분야·산업 : 의료재정 압박과 헬스케어 구조 개편 전망
 -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 고령화에 따른 장기 요양·재활 서비스 수요 증가, 응급실·전문 병상 부족, 간호·돌봄 인력 확보 문제 심화
 - 건강보험 : 스위스 특유의 개인 선택형 의료보험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험료 지속 상승으로 가계 부담 증가 및 제도 개혁 필요성 대두
 -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의료기록(ePD) 확산, 원격진료 서비스, 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
 - 예방 및 공중보건 : 만성질환·치매 등 고령화 관련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역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수요가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와 리스크
 - 디지털 헬스 솔루션 : 전자의료기록, 원격진료,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관리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국의 IT·헬스케어 기업에 기회가 존재하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제 강화가 진입 리스크로 작용
 -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 고령 환자 치료·재활용 의료기기, 치매·만성질환 관리 솔루션, 제약·바이오 협력 기회 확대가 가능하나, 고가 장비 중심의 경쟁 심화와 인증 절차 장기화가 부담 요인
 - 보험·재정 관리 서비스 : 보험료 인상에 대응한 비용 절감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 기회가 존재하나, 스위스 내 복잡한 연방·주 단위 제도 차이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음
 - 사회적 수용성 및 제도 리스크 : 의료 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과정에 좌우되며, 건보료 인상·서비스 축소 등은 사회적 반발 가능성을 내포하여 협력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작용

라. (외교) EU-스위스 양자 협정 변화 및 관계 재정비

□ 개요

- 스위스-EU 양자 협정 III, '25년 가서명 및 6월 13일 연방 평의회 승인
 - '24년 3월, 스위스와 EU는 '양자 협정 III' 협상을 개시, 기존 협정 복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노동 시장·전력망·R&D 보건 등 신규 협력 분야 포함
 - 정식 서명은 '26년 1분기, 국민투표를 거쳐 '28년 이후 발효 전망

- 단일시장 정합성 회복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
 - 연구·혁신 분야 : Horizon Europe 참여 재개로 다자간 연구 프로젝트 및 국제 협력 확대 가능성
 - 의료기기·보건 분야 :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복원으로 인증 절차 간소화, 시장 진입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전력·에너지 분야 : 전력망 협정으로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 효과 기대
 - 노동 시장·임금 보호 분야 : EU 인력 이동 규범과 정합성 강화, 기업 인건비·노동 규제 환경 변화 예상
-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와 리스크
 - 의료기기·전기전자 산업 : MRA 복원으로 우리 기업의 의료기기 인증 비용 절감 및 등록 절차가 간소화가 예상되나, 현재 스위스는 자국 규제(MedDO·IvDO 등)를 병행 적용함에 따라 이중 체계로 인한 행정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
 - R&D·혁신 분야 : Horizon Europe 한국 참여 확대와 스위스 재개로 바이오테크·메드테크·AI 공동 프로젝트 기획이 확대될 전망이나, 연구 지원금 및 IP 관리가 EU 규정에 종속되어 우리 기업이 간접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자금 배분 우선순위 하락과 협상 지연 우려
 - 에너지 분야 : 전력망 협정 체결로 스위스 전력 시장 통합이 강화되며 스마트그리드·재생에너지 장비 협력 확대가 기대되나, 스위스 내 에너지 기업의 공공성 비중이 높고 제한적 입찰 경쟁으로 기술 제휴·공동 입찰 중심의 간접 진출 구조 존재
 - 노동·서비스 분야 : 인력 이동 자유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인재 활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나, 임금 보호 규정 강화와 칸톤(주)별 행정·노동 규정 차이로 계약 비용 상승 리스크

마. (디지털/산업) AI·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과 규제 정합화

□ 개요

- AI 규제, e-ID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 '25년 2월, 연방 평의회, 유럽 평의회 AI 협약 비준 및 고위험 영역별 맞춤형 AI 규제 확정
 - '25년 9월, e-ID 법안 국민투표 가결로 '26년부터 디지털 신분증 'SWIYU' 발급 예정
 - 「Digital Switzerland Strategy」 및 「Digital Public Services 2024-2027」으로 데이터 상호 운용성, 공공서비스 표준화, 신뢰 인프라 강화 추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nFADP) 시행으로('23.9.)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강화, '25~'32년 「Swiss Government Cloud」 구축으로 공공기관 보안·거버넌스 일원화 추진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핵심 수요 확대
 - 신원·신뢰 서비스 : e-ID 및 전자지갑 도입과 함께 본인 확인(KYC)·전자서명·자격증명(교육·의료 등) 관련 시스템 수요 확대. 공공·금융 의료 기관 중심으로 신원 인증 연계 서비스 채택 가속

- AI 거버넌스·고위험 도메인 : AI 협약 비준 이후 고위험 분야(보건·교통·금융 등)에서 AI 모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리·감사 시스템 구축 수요 증가
- 공공 디지털 서비스 : 행정 서비스의 통합 운영(One-Stop)과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통합(SI), 데이터 관리 솔루션, 정보 연계 도구(API) 시장 성장
- 클라우드·보안 : 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맞춰 보안 운영, 암호화, 접근 통제 등 사이버보안 강화 요구 확대 및 공공 조달의 보안과 데이터 보호 기준 강화
- 데이터 보호·컴플라이언스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nFADP)* 시행으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위험 평가, 규제 대응 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규제 준수 기술(RegTech)** 및 프라이버시 기술 서비스 시장 성장 중

* nFADP(new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는 EU GDPR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9월에 시행된 스위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레그테크(RegTech)는 AI·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준수·위험관리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지원하는 산업 분야


•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와 리스크

- 신원·신뢰 인프라(Identity/PKI·핀테크) : e-ID·디지털 지갑(SWIYU) 생태계 확장에 따라 전자 서명, KYC/AML 모듈, 신원 증명 SDK 등 솔루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25년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e-ID법이 가결됨에 따라 기능·보안 요건 확정 절차가 진행 중임. 조달 과정에서는 현지 인증 및 nFADP 준수 증빙 부담이 존재
- * '25년 9월 28일, 국민투표 e-ID법 국민투표 가결로, 정식 서비스 개시는 '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 제도는 자발적 이용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존 신분증·여권 등은 병행 사용 가능
- AI·데이터 분야 : 고위험 영역별 규제 확립으로 모델 리스크 관리, 설명 가능한 AI(XAI), 모니터링 솔루션 협력 기회가 커지고 있으나, EU·유럽평의회 규제 변화에 따른 동적 정합성 확보와 문서화·감사 대응 부담 병존
- 공공 디지털 서비스·클라우드 분야 : Swiss Government Cloud(2025~2032) 구축 및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과정에서 멀티클라우드·보안·데이터 교환 표준 솔루션 협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나, 연방·주·기초자치단체별 조달·보안 기준 상향과 데이터 레지던시 요건으로 인해 현지 파트너십 확보 필수
- 개인정보·보안 분야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nFADP) 시행으로 DPIA 자동화, 처리기록·동의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나, EU와의 규제 불일치로 인해 이중 대응 비용이 가중되고 감독기구(FDPIC) 지침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변동 위험 상존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4
2. 유망 산업	44
3. 협력 기회	5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소규모 개방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성 보유
- 까다로운 인증, 패키징 및 라벨링 규정, ESG 요구 수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높은 물가와 작은 내수 시장으로 그린 필드 투자 유치 비율은 낮으나 우수 인력풀과 친기업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다수 소재

가. 시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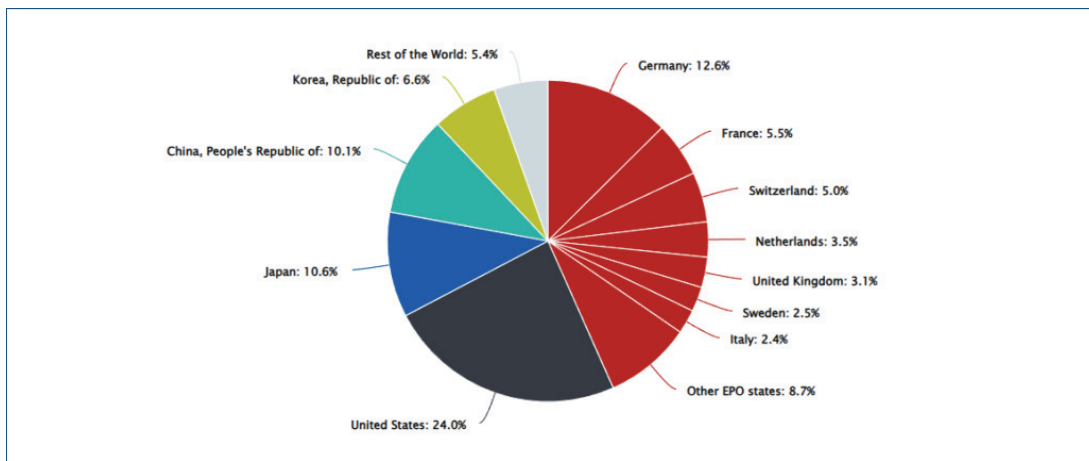
□ 주요 특징

- (시장) 고소득·안정적 구조가 뒷받침하는 스위스 시장의 구매력
 - 인구 규모는 약 900만 명의 소규모 시장이나 '25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10만 4,896달러(세계 3위)로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25. 9. 기준 연방통계청(FSO) '25년 2분기 통계자료)
- (경제) 개방경제·높은 수출 의존도('24년 기준 전체 GDP의 약 72.2%/WB)
 - GDP의 약 74%는 서비스업, 25%는 제조업, 농업은 1% 미만을 차지하며, 선진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양축을 이루고 있음.
 - '25년 7월 기준 전체 수출액은 1,631억 스위스 프랑이며, 이 중 상위 3개 분야인 화학·제약(867억 스위스 프랑), 기계·전자(189억 스위스 프랑), 시계(151억 스위스 프랑) 분야의 수출 총액은 1,200억 스위스 프랑으로 전체 수출의 74% 차지
 - 최대 무역 파트너는 EU로 전체 수출의 약 49.6%, 수입의 약 68.6% 차지('24.11. 기준 FDFA 통계자료)
 - 경제·제도의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로 기능하며, '24년 기준 GDP 대비 17.2%의 낮은 연방정부 부채*가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스위스 연방정부 순부채는 '24년 말 기준 약 1,410억 스위스 프랑(CHF)으로, 이는 일반정부 부채와 구분되는 지표임. 스위스는 '03년 도입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통해 재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약 350억 스위스 프랑(CHF) 규모의 특별 부채는 상환계획에 반영되어 '35~'39년까지 상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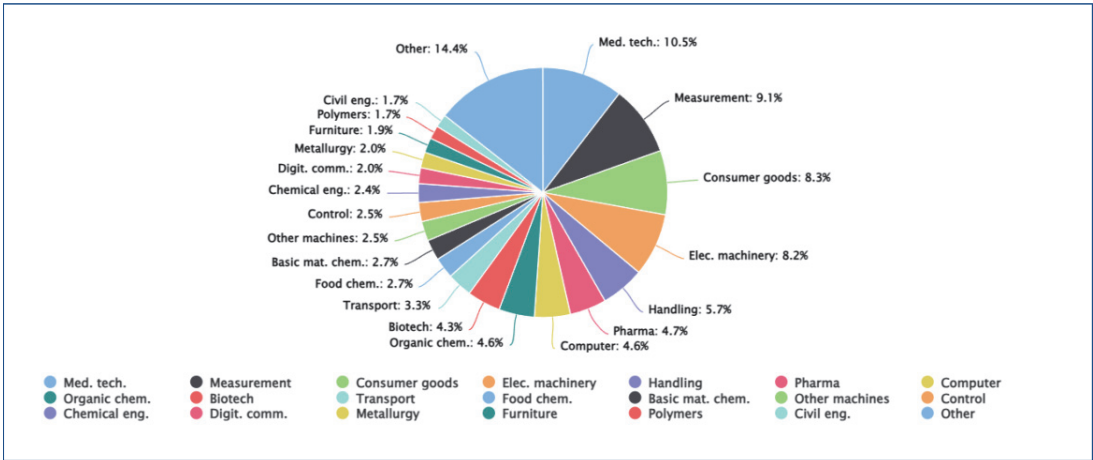
- (산업) 스위스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
 -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S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의 약 2/3를 창출하고 상당수가 수출 중심 구조를 띠고 있음
 - 스위스는 글로벌 대기업 본사가 다수 위치한 본거지로, Nestlé(식품·음료), Novartis(제약), Roche(제약), UBS(금융), Zurich Insurance(보험), SwissRe(재보험), Glencore(원자재), Migros(소매), Coop(소매), Holcim(건축자재), Adecco(인적자원), ABB(엔지니어링) 등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 가운데 14개사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운영하며,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는 8.1%의 표준세율, 숙박 서비스는 3.8%, 식품 등 생활필수품에는 2.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유지
- (R&D) 높은 R&D 투자를 통한 세계적 혁신 경쟁력 유지
 - 제약·바이오, 금융·보험, ICT 및 정밀 기계 등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5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연간 약 250억 스위스 프랑(CHF)이며, GDP 대비 약 3.4%에 해당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1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지식·기술 산출과 창조적 산출 부문에서도 1위 유지
 - 스위스의 '24년 유럽특허청(EPO) 특허 출원 수는 약 1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인구 백만 명당 1,140건으로 주요 출원 분야는 의료 기술 10.5%, 측정 기술 9.1%, 소비재 8.3%, 전기기계 8.2%, 물류 5.7%, 제약 4.7% 순

〈'24년 국가별 특허 비율〉



자료: 유럽특허청(EPO)

〈'24년 스위스 분야별 특허 비율〉



자료: 유럽특허청(EPO)

- (자유무역협정)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국
 - 스위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EU)과의 경제 관계를 보완
 - 동시에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스위스가 EFTA 소속으로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파트너국	협정 명칭	체결/발효 시점	주요 내용
EU	EFTA-EU FTA	1972년 체결	• 상품 및 서비스 상호 접근, 인적 이동 자유, 인증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등 협력 확대 포함
일본	EFTA-Japan FTA	2009년 발효	• 상품 무역 및 서비스 분야 개선,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
중국	EFTA-China FTA	2014년 발효	• 상품 및 무역 절차 간소화, 투자 및 경제 협력 증진 조치 등 포함
캐나다	EFTA-Canada FTA	2009년 발효	• 상품 관세 철폐, 무역 및 투자 장벽 해소 등 포함
인도	EFTA-India(TEPA)	2025년 발효	• 상품 관세, 산업제품 분야 접근성 확대, 투자 증가 촉진 등이 핵심 요소
Mercosur	EFTA-Mercosur FTA	2025년 체결	• 관세 철폐, 교역 확대,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력 포함
SACU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EFTA-SACU FTA	2008년 발효	• 상품 무역 자유화, 기술 협력 및 무역관계 강화 포함

자료: 스위스연방경제청(SECO)

□ 구매력, 소비 성향

- (구매력) 세계 2위, 유럽 1위의 구매력 수준
 - 구매력 지수(Local Purchasing Power Index)는 177.8로 세계 2위*, 유럽 내 1위 기록
 - * NUMBEO : 전 세계 도시와 국가의 생활비, 안전성, 의료, 교통 등 여러 지표 제공
- (소비 성향) 고품질·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
 - 스위스 소비자는 품질·지속가능성·안전성을 구매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며, 친환경·유기농·공정무역 인증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
 - 인터넷 보급률이 98%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 및 옴니채널 소비가 빠르게 정착. 무료 배송·반품, 할인 프로모션이 소비 촉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재판매·중고 시장은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며, 의류·전자제품·가구 중심으로 중고·재활용 제품 거래가 활발히 확대되고 있음
 - * '25년, 스위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Ricardo를 운영하는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 Swiss Marketplace Group(SMG)이 취리히 증시에 상장
 - '25년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40포인트 수준으로, '24년 8월보다 5%p 낮은 수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가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인증 및 인허가 기관

- (CE 인증) 기계·전자·의료기기 등 필수 규격 인증
 -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단일시장과 기술규격을 연동해 CE 마크가 사실상 필수 진입 조건으로 작동
 -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의료기기, 장난감 등 대부분 산업군에서 CE 마크 없이는 유통 불가
- (화장품 안전 인증) EU 규정과 동일한 안전성·라벨링 요건
 - 화장품은 스위스 연방법(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FSVO)에서 관리하며,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과 동일 기준을 따름
 - 제품 등록(Responsible Person 지정), 성분 안전성 평가, 라벨링(성분 표시·알레르기 정보) 요건 충족 필요
- (식품·유기농 인증) Bio Suisse 등 엄격한 친환경·유기농 기준
 - Bio Suisse는 스위스 내 유기농 제품의 대표 인증으로 EU 유기농 규정보다 엄격해 현지 유통망 입점 시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작용
 - Fairtrade, FSC 등 윤리·지속가능 인증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
- (Swiss Safety Mark) 전기·전자제품 안전 인증 제도
 - ESTI/Swiss Safety Mark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 인증으로 CE를 보완하는 국가 인증 성격

- (산업별 특수 인증) EU 규정 적용
 - 화학·건축자재 등은 REACH, RoHS 등 EU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
- (Swissmedic)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관리 기관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담당 기관으로 EU 의료기기 규정(MDR)과 연동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

□ 스위스 시장의 전략적 가치

- 고소득·높은 구매력 소비 기반
 - 스위스는 세계 최상위권의 1인당 GDP와 구매력 지수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과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경쟁력을 검증받는 시험 무대로 기능
- 유럽 경제권의 전략적 관문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과 EU 및 EFTA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스위스를 주요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 산업 클러스터 및 혁신 생태계
 - 제약·바이오, 금융·보험, 정밀기계, ICT 등 글로벌 선도 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어, 한국 기업에게 공동 연구·투자 협력 및 기술 교류의 교두보로서 의미가 높음
- 안정적 제도 및 신뢰성
 - 정치·제도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기반은 스위스를 장기적 경영 활동과 해외 투자에 적합한 환경으로 평가받게 함
- 브랜드 신뢰도 제고 효과
 - 품질·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으로 인해, 스위스 시장에서의 성과는 기업의 국제적 신뢰도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 가능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5년 7월 누계 기준 스위스 수출은 5,1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세 기록
 - 귀금속, 제약·의약품, 화학제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확대가 전체 실적을 견인
 - 내수 의존도가 낮고 첨단·정밀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견조하게 유지되는 양상
- (수입 규모) '25년 7월 기준 수입은 4,3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세 지속
 - 의약품 원료, 귀금속, 기계·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투입재 중심의 수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 및 금융·서비스업 전반의 핵심 중간재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스위스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7월		2024년 7월		2025년 7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419,98	4.8	447,30	6.5	510,08	18.7
역외수입	365,61	2.4	371,95	1.7	434,31	19.7
무역수지	54,37	24.8	75,35	38.6	75,77	1.3
총 교역	786,59	3.7	819	4.3	944	19.0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미국·독일·영국·중국 상위 4대 스위스 수출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 1,036억 달러(점유율 15.1%)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 전년 대비 100.9%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세 기록
 - 독일 : 441억 달러(점유율 13.3%)로 2위 수출국, 기계·화학·정밀기기 중심의 안정적 교역 구조 유지
 - 영국 : 343억 달러(점유율 8.4%)로 3위, 귀금속 및 관련 품목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118.8% 급증
 - 중국 : 291억 달러(점유율 7.1%)로 4위이나, 전년 대비 17.1% 감소
 - 슬로베니아 : 238억 달러(점유율 5.8%)로 5위, 의약품 재수출 거점으로 기능하며 전년 대비 21.23% 증가
 - 이탈리아·프랑스 : 각각 200억 달러(점유율 5.5%), 187억 달러(점유율 4.5%)로 유럽 내 안정적 수출처 역할 유지
 - 기타 신흥국 : 터키(87억 달러, 점유율 2.1%), 오스트리아(84억 달러, 점유율 2.0%) 등이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다변화 확대

스위스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5년 9월 /'24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317,941	327,490	408,520	100.00	100.00	100.00	24.74
1	미국	49,082	49,448	103,696	15.44	15.10	25.38	109.71
2	독일	39,000	38,035	44,178	12.27	11.61	10.81	16.15
3	영국	9,854	15,680	34,307	3.10	4.79	8.40	118.79
4	중국	35,517	35,137	29,128	11.17	10.73	7.13	-17.10
5	슬로베니아	13,349	19,669	23,844	4.20	6.01	5.84	21.23
6	이탈리아	20,064	20,802	22,600	6.31	6.35	5.53	8.64
7	프랑스	14,886	16,020	18,746	4.68	4.89	4.59	17.02
8	인도	11,570	15,960	11,624	3.64	4.87	2.85	-27.17
9	터키	13,958	6,306	8,711	4.39	1.93	2.13	38.14
10	오스트리아	7,950	6,138	8,412	2.50	1.87	2.06	37.06
21	대한민국	2,607	3,140	3,336	0.82	0.96	0.82	6.23

주: 순위는 '25년 9월 수출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 (수출 품목) 귀금속·제약·화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품목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
 - 귀금속·보석·주얼리(HS71) : 1,583억 달러(점유율 38.7%), 전년 대비 60.3%으로 증가하며, 스위스가 글로벌 귀금속 가공·재수출 허브임을 반영
 - 의약품(HS30) : 928억 달러(점유율 22.7%),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지속 확인
 - 유기화학제품(HS29) : 379억 달러(점유율 9.2%),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 제약·화학 밸류체인 연계 품목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 수출 확대 지속
 - 시계(HS91) : 225억 달러(점유율 5.5%),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전통적 주력 산업으로 고부가 수출 유지
 - 기계류(HS84) : 188억 달러(점유율 4.6%), 산업용 기계·정밀기계 중심 산업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 정밀기기(HS90) : 159억 달러(점유율 3.9%),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며 의료기기·측정기기 중심 안정적 수출
 - 전기기기(HS85) : 121억 달러(점유율 2.9%),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 기타 : 플라스틱(47억 달러, 점유율 1.1%), 에너지·연료(44억 달러, 점유율 1.0%), 화장품(31억 달러, 점유율 0.7%) 등

스위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5년 9월 /'24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317,941	327,490	408,520	100.00	100.00	100.00	24.74
1	71	96,691	98,805	158,383	30.41	30.17	38.77	60.30
2	30	76,875	83,695	92,880	24.18	25.56	22.74	10.98
3	29	29,844	32,014	37,938	9.39	9.78	9.29	18.51
4	91	21,833	21,753	22,590	6.87	6.64	5.53	3.85
5	84	19,010	18,719	18,869	5.98	5.72	4.62	0.80
6	90	14,811	14,920	15,917	4.66	4.56	3.90	6.68
7	85	11,104	11,307	12,175	3.49	3.45	2.98	7.68
8	39	4,783	4,559	4,704	1.50	1.39	1.15	3.19
9	27	4,722	3,828	4,423	1.49	1.17	1.08	15.54
10	33	2,880	3,233	3,178	0.91	0.99	0.78	-1.72

주: 순위는 '25년 9월 수출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독일·미국·아랍에미리트가·이탈리아 상위 4대 수입 시장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 : 563억 달러로 최대 수입국 지위 유지, 기계·자동차 부품·화학제품 중심의 교역 구조.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미국 : 421억 달러(점유율 11.6%)로 2위, 제약·IT·화학제품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76.1%)
 - 아랍에미리트 : 335억 달러(점유율 9.2%)로 3위, 의약품 수입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36.4% 급증
 - 이탈리아 : 267억 달러(점유율 7.4%)로 4위, 식품·섬유·기계류 등에서 공급 기반을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4% 성장
 - 슬로베니아 : 225억 달러(점유율 6.2%)로 5위, 제약 산업 특화로 전년 동기 대비 58.4% 급증
 - 중국 : 187억 달러(점유율 5.1%)로 6위, 전자·기계류 수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
 - 프랑스 : 173억 달러(점유율 4.8%)로 7위, 화학제품·화장품·식품 수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오스트리아 : 826억 달러(점유율 2.2%)로 8위, 제약, 기계 관련 수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

- 영국 : 705억 달러(점유율 1.9%)로 9위, 귀금속 및 화학제품 관련 수입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5% 급증
- 일본 : 60억 달러(점유율 1.8%)로 10위, 자동차·정밀기계 수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

스위스 주요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5년 9월 /'24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74,684	274,215	361,016	100.00	100.00	100.00	31.65
1	독일	50,091	51,416	56,371	18.24	18.75	15.61	9.64
2	미국	26,101	23,946	42,173	9.50	8.73	11.68	76.12
3	아랍에미레이트	7,143	9,972	33,548	2.60	3.64	9.29	236.41
4	이탈리아	20,969	22,616	26,784	7.63	8.25	7.42	18.43
5	슬로베니아	8,862	14,225	22,543	3.23	5.19	6.24	58.48
6	중국	15,218	14,563	18,712	5.54	5.31	5.18	28.49
7	프랑스	16,502	15,859	17,386	6.01	5.78	4.82	9.63
8	오스트리아	8,122	8,286	8,265	2.96	3.02	2.29	-0.25
9	영국	5,455	4,812	7,054	1.99	1.75	1.95	46.59
10	일본	5,953	5,804	6,717	2.17	2.12	1.86	15.74
34	대한민국	2,032	1,417	1,924	0.74	0.52	0.53	35.79

주: 순위는 '25년 9월 수출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 (수입 품목) 귀금속·의약품·기계 중심으로, 수출 구조와 유사하나 중간재·가공재 비중이 높음
 - 귀금속·보석·주얼리(HS71) : 1,615억 달러(점유율 44.7%)로 귀금속 재수출을 위한 대규모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9% 증가
 - 의약품(HS30) : 566억 달러(점유율 15.7%), 다국적 제약사의 연구·생산 허브로 기능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
 - 기계류(HS84) : 174억 달러(점유율 4.8%), 산업용 기계·부품 수입 안정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 자동차(HS87) : 145억 달러(점유율 4.0%), 전년 동기 대비 1.1%로 증가
 - 전기기기(HS85) : 131억 달러(점유율 3.6%), 전년 대비 3.2% 증가
 - 유기화학제품(HS29) : 91억 달러(점유율 2.5%), 제약·화학 산업의 핵심 중간재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
 - 광물성 연료(HS 27) : 86억 달러(점유율 2.4%), 국제 유가 상승과 전력·난방 수요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정밀기기(HS90) : 77억 달러(점유율 2.4%), 전년 대비 4.5% 소폭 증가
- 자동차(HS39) : 60억 달러(점유율 1.6%), 전년 대비 4.2%로 전년 대비 감소세
- 자동차(HS94) : 39억 달러(점유율 1.1%), 전년 대비 4.5%로 전년 대비 감소세

스위스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5년 9월 /'24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74,684	274,215	361,016	100.00	100.00	100.00	31.65
1	71	93,069	91,271	161,512	33.88	33.28	44.74	76.96
2	30	41,749	50,280	56,684	15.20	18.34	15.70	12.74
3	84	17,113	16,697	17,410	6.23	6.09	4.82	4.27
4	87	15,303	14,399	14,563	5.57	5.25	4.03	1.14
5	85	13,989	12,701	13,109	5.09	4.63	3.63	3.21
6	29	7,071	6,183	9,158	2.57	2.25	2.54	48.11
7	27	11,049	8,336	8,678	4.02	3.04	2.40	4.10
8	90	7,361	7,384	7,722	2.68	2.69	2.14	4.57
9	39	5,920	5,817	6,064	2.16	2.12	1.68	4.25
10	94	3,831	3,786	3,958	1.39	1.38	1.10	4.56

주: 순위는 '25년 9월 수출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 한국과 스위스 간 교역 동향

- (교역) '25년 8월 누계 기준, 한-스위스 교역은 상호 보완적 무역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
 -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은 의약품, 자동차, 시계부품이 주도하고 있는데 교역 품목이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
 - 한국의 스위스산 품목 수입은 의약품·자동차·시계·광학기기 등이 주를 이룸
- 교역 규모
 - (수출) '25년 8월 누계 기준 對스위스 수출은 1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9% 증가. 의약품 및 기계류 및 부품, 단백질류가 전체 증가세 주도
 - (수입) 동기간 對스위스 수입은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2% 증가, 의약품·귀금속이 큰 폭으로 확대
 - (무역수지) 對스위스 약 14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스위스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

한국의 對스위스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2,038	-28.31
1	의약품	938	-39.93
2	자동차 및 부품	349	-4.34
3	귀금속	116	-50.98
4	전기기기·영상기기	108	-5.52
5	유기화학제품	101	8.44
6	기계류 및 부품	96	-22.67
7	플라스틱류	52	3.86
8	광학기기·의료기기	42	4.07
9	시계 및 부품	40	-5.58
10	철강	38	-24.31

2025년 8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1,529	19.19
1	의약품	816	53.77
2	자동차 및 부품	202	-21.92
3	전기기기·영상기기	73	-1.18
4	기계류 및 부품	72	20.56
5	귀금속	64	-20.22
6	유기화학제품	42	-30.33
7	플라스틱류	34	-3.33
8	단백질류	33	156.59
9	광학기기·의료기기	32	6.67
10	시계 및 부품	30	14.19

주: 순위는 '25년 8월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5.9.)

한국의 對스위스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4,068	13.78
1	시계 및 부품	878	10.80
2	의약품	827	6.61
3	귀금속	630	52.81
4	기계류 및 부품	462	-0.41
5	광학기기·의료기기	296	-4.74
6	정유·향료·화장품류	218	34.07
7	유기화학제품	183	64.09
8	전기기기·영상기기	147	-2.48
9	커피·차·향신료	140	54.24
10	플라스틱류	37	-14.29

2025년 8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2,968	5.92
1	의약품	628	6.21
2	시계 및 부품	615	6.70
3	귀금속	615	41.20
4	기계류 및 부품	362	24.05
5	광학기기·의료기기	189	-4.71
6	전기기기·영상기기	116	20.33
7	유기화학제품	108	-11.89
8	정유·향료·화장품류	86	-57.11
9	커피·차·향신료	73	-22.70
10	플라스틱류	28	2.79

주: 순위는 '25년 8월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5.9.)

- (수입) 對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의약품, 시계 및 부품 등으로, 특히 귀금속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스위스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럭셔리 시계의 브랜드 가치, 한국 내 수요 확대가 반영되며 의약품·시계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귀금속 등의 수입이 함께 확대된 것이 특징
- 한국의 스위스 내 시장 점유율
 - 스위스 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0.54% 수준에 머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전체 교역 규모 대비 여전히 미미한 수준
- 스위스 내 우리 기업의 핵심 수출 품목 동향
 - (의약품) 스위스 최대 수출 품목인 의약품은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이상 성장, 스위스 제약 기업과의 협력 및 위탁생산(CMO) 수요 확대가 뒷받침
 - (시계) 한국산 시계 및 부품의 對스위스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97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3% 증가. 비중은 전체의 2.1% 수준으로 여전히 제한적이나, 점진적 성장세를 보임.
- 스위스 내 최근 우리 상품 위상 변화
 - 對스위스 수출은 전통 주력 품목(자동차, 기계류) 비중이 축소되고, 의약품·시계·귀금속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구조 재편이 진행 중
 - 특히 의약품과 시계 부품은 對스위스 교역에서 한국 상품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가격 경쟁력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이 반영된 결과
 - 아울러, 최근 K-컬처 열풍을 배경으로 K-뷰티 제품(화장품)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對스위스 소비재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점유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전체 교역 규모 대비 점유율은 여전히 낮아,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 인증·규제 대응,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제약·고급 소비재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 스위스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K-Fashion 진출전략 : 국내기업 W사(스위스 한류 전시 출품 및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K-팝·K-드라마 등 한류의 문화적 파급력을 기반으로 현지 MZ세대에게 'K-Fashion' 자체가 차별화된 가치로 인식
 - 과도하게 실험적이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트렌디한 스트리트웨어
- 필수 인증 :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2024년 10월~2025년 2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Museum Rietberg 박물관 현장 방문을 통한 수요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K-Beauty, K-Food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만큼, K-Fashion 역시 현지 소비자 반응이 우호적. 단순 의류 판매가 아닌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시장 진출전략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

〈2024년 수출 성공 사례 형태〉

- 스위스 취리히의 문화 박물관 Museum Rietberg에서 열린 한류 특별전 Hallyu! The Korean Wave 중 한국 의류 기업 W사 약 30개 제품(바람막이, 집업, 스웨트셔츠, 바지, 모자)이 전시 및 수출(USD 1,123)
- 전시는 1990년대 말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한류 현상을 조명하며, K-팝 의상, 영화 소품, 뷰티·패션 트렌드 등 200여 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선보여 현지 관람객에게 큰 주목을 받음
-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전시 참여를 통해 스위스 시장 내 한국 패션의 인지도와 가시성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



성공 사례로 보는 제약 바이오 진출전략 : 국내 기업 P사(현지 A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제품의 비교우위
 - 양사 강점을 융합한 in vitro(시험관 내)부터 in vivo(생체 내)까지 아우르는 인간화 비임상 모델 기반 한-스위스 약물 유효성 검사 통합 솔루션 출시
- 필수 인증 : GLP(우수실험실운영규정)
- 성약 소요 기간 : 2024년 3월~2025년 1월(파트너십 체결)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주선으로 현지 스위스 기업 A사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단순 영업이 아니라, 공동 마케팅·공동 서비스 개발 방식의 현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진출 초기 낮은 인지도와 네트워크 부족을 극복하며 효과적인 현지 진출 기반 확보

〈'24년 수출 성공 사례 형태〉

- 국내기업 P사는 면역 질환 및 인간화 동물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비임상 CRO로, 낮은 인지도와 현지 네트워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화 다기관 오가노이드 모델을 보유한 스위스 기업 A사와 협력 논의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in vitro(시험관 내)부터 in vivo(생체 내)까지 아우르는 인간화 비임상 모델 기반 약물 유효성 검사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25년 3월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 Bio Europe에서 공동 홍보를 추진함
- 또한 '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한-스위스) R&D 지원 사업에 신청을 완료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통한 협력으로 현지 진출 기반을 확보함

□ 스위스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규제 건수, 주요 내용

- 전체 대외 수입 규제 건수는 약 150건 수준으로, 농업 쿼터·관세, 기술 표준이 주를 이루며 반덤핑·상계관세는 5건 미만
- WTO 기준으로 스위스 무역규제 조치는 '24년 말까지 누적 20건 미만이며, 대부분 EU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5년 신규 조치 건수는 없음
- 관세·쿼터 부분에서는 산업재 99% 무관세(FTA 확대 효과), 농업(유제품·육류 등) 평균 20~50% 관세 부과 및 연간 1만 톤 미만 수준의 수입 쿼터 운영(치즈 수입 쿼터 연 2만 톤, 초과 시 100% 관세 적용)
- '25년 1월 1일부터 개인 수입 VAT 면제 한도가 기존 300 스위스 프랑(CHF)에서 150 스위스 프랑(CHF)으로 축소, 전자상거래 플랫폼(Amazon 등)에 의제 공급자(deemed supplier) 규정이 도입되어 플랫폼이 VAT 납부 주체로 전환됨(8.1% 표준 VAT). 이는 한국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에도 직접 적용됨
- 식품·화학 규제 : '25년 7월 1일부터 BPA(비스페놀 A) 함유 식품 접촉 재료(FCM)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 EU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성 검사 강화가 병행되고 있음
- 對韓 수입 규제 건수는 0건으로, 최근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례는 없음
- EFTA-한국 FTA에 따라 99%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어 있으며, NTB(비관세장벽) 역시 최소화된 상태

• 기타

- '26년 예정된 EFTA-한국 FTA 재협상에서 EU의 FTA 모델을 참조한 NTB* 강화 논의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 시 스위스 역시 농업 분야 중심으로 보호주의 강화 가능성이 존재함

* NTB(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 관세 외의 무역 제한 조치로, 수입 쿼터, 기술·안전 규제, 인증, 반덤핑 등 포함

- 對韓 수입은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e-commerce VAT 강화로 인해 약 5~10%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WTO 분쟁 발생 시 EFTA 차원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동시에 금융·IT 등 서비스 무역 자유화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제약·바이오
 - (특징) 노바티스(Novartis), 로슈(Roche) 등 글로벌 제약사가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의약품, 바이오·백신, 특허 기술 기반의 강력한 R&D 역량을 보유함. 스위스 제조업 전체 R&D 투자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 (현황) '25년 1분기 기준 산업 생산 증가율에서 제약 제품 제조가 30% 이상 확대되는 등, 수출 주도 산업으로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글로벌 제약사들은 임상·생산시설 확충, M&A, 디지털 바이오 활용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 (리스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자재 공급망 불안,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 만료, 바이오시밀러 확산, 주요 수출국의 규제·관세 변화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
- 기계·전기·금속
 - (특징) 정밀공학, 공작기계, 자동화, 측정·센서, 플루이드 기술(fluid tech), 펌프·컴프레서, 포토닉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강점을 지님. 대다수가 중소기업(SME)으로, 혁신성과 수출 지향성을 특징으로 함
 - (현황) '25년 초 산업·건설 부문에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8.5% 증가. ABB, Georg Fischer, Stadler Rail 등 기업들이 전력·교통·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주문 감소, 프랑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악화, 일부 수출 둔화가 산업 전반 부담 요인.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및 신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존재함
- ICT·디지털
 - (특징) 생명과학, 핀테크,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로봇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자동화, 산업 4.0 기술 수요가 높음
 - (현황) 디지털 기술 도입 빈도와 기대 수준은 높지만, 숙련 인력 부족 및 기술 격차가 병목으로 지목됨.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연구 거점이 스위스에 집중되며 ICT 클러스터 위상이 강화되는 중

스위스 내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연구 및 전략 거점 현황

구분	기업명	주요 거점	핵심 연구·활동 분야	특징
글로벌 빅테크*	구글 (Google)	취리히 (Zurich)	머신러닝, 생성형 AI, 클라우드 인프라	• 유럽 최대 규모 AI·클라우드 연구센터 운영. ETH Zurich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AI 전략 거점으로 기능
	애플 (Apple)	취리히 (Zurich)	이미지·비전 기반 AI, 멀티모달 모델	• 취리히 Vision Lab을 중심으로 이미지·비전 기반 AI 및 멀티모달 모델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 인식·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AI 전략 거점으로 기능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취리히 (Zurich)	AI 보조도구, Copilot, 생성형 AI	• 2025년 신규 AI 연구소 설립 발표. Google DeepMind 출신 연구진 영입으로 경쟁력 제고
	메타 (Meta)	취리히 (Zurich)	AR/VR, 몰입형 AI	•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연구 및 유럽 연구 인프라 확충
	보스턴 다이내믹 (Boston Dynamics)	취리히 (Zurich)	로보틱스, AI 자율제어	• 로봇 AI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추진
스위스 스타트업	아이비엠 (IBM)	취리히 (Zurich)	양자컴퓨팅, AI	• 양자·AI 융합 연구 추진, 산업 응용 확장
	래티스플로우 (LatticeFlow)	취리히 (Zurich)	AI 품질관리·데이터 정합성	• ETH Zurich 스핀오프. AI 모델 신뢰성 검증 솔루션 개발
	데달리언 (Daedalean)	취리히 (Zurich)	항공용 AI·자율비행	• 항공 안전용 AI 시스템 개발, 글로벌 항공사와 협력
	신사라 (Synthara)	루체른 (Lucerne)	엣지 AI 반도체	• 저전력·고효율 AI 칩 설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장 진출 중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및 스위스 언론사

- (리스크)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 규제(이중 사용 제품 규제 확대) 등이 향후 중요한 변수이며, 인건비·운영비 등 비용 부담과 AI 윤리·데이터 규제 강화 가능성 존재
- 고부가가치 R&D 집중 및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비용·리스크 분산 전략 요구

• 금융 서비스

- (특징) 국제 금융 허브로서 프라이빗 बैं킹, 자산운용, 보험·재보험, 투자은행 분야에서 전통적 강점을 보유. 정치적 중립, 법률 안정성, 금융 인프라, 규제 체제가 경쟁력 기반
- (현황) UBS-크레디트스위스 통합 이후 글로벌 시장 내 위상이 재편, 재보험 분야, 특히 글로벌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 크립토밸리(Zug) 중심의 핀테크·블록체인 생태계도 빠르게 확산 중

- (리스크)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조세 투명성 요구 확대, 금리·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업 수익성과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제약·바이오
 - (관세 이슈) 아직까지 직접 타격은 없으나, 50~60%에 달하는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로 인해 노바티스 (Novartis) 등은 재고 확대와 가격 인하를 검토 중
 - EU-미국 무역 협정(15% 관세)으로 일부 공급망 재편 시작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미국의 장기적 가격 규제 강화가 잠재 리스크로 작용 전망
- 정밀·의료기기
 - 미국 관세 영향 직격탄으로 미국 수출 가격 상승·수요 둔화. 주사기·스캐너·임플란트 등 공급망 혼란 야기. Swiss Medtech 협회, 회원사들이 경쟁국 기업 대비 불리한 상황으로 현지 생산 이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25.10.15. Swiss Medtech, Pressure on medtech industry intensifies)
- 기계·전기·금속
 - '25년 8월 수출 21% 이상 급감. 미국 설비 투자 지연과 25% 자동차 관세 지속으로 직·간접 수요 위축. 고부가 장비는 기술력으로 방어 가능하나, 범용 장비는 대체 위험 높음
- 시계·고급 소비재
 - 미국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약 55.6% 감소 및 일부 브랜드 약 15% 인상 발표('25.9. Swiss Medtech, With Tariffs Now in Place, Swiss Watch Exports to the U.S. Have Dropped 56%)
 - 이에 일부 브랜드는 관세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유통업체에도 마진을 줄여 손실은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음. 중저가 브랜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ICT·디지털
 - 하드웨어 중심 deep tech(로봇·AI) 수출 타격, 스타트업 판매 3% 하락(1~3월)
 - 소프트웨어·서비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스위스 정부는 디지털 주권 강화·세제 혜택으로 미국의 빅테크 유치 시도 중
- 식품·영양·농업
 - 초콜릿·치즈 가격 상승, 농업 관세 협상으로 쿼터 조정 논의. 초콜릿 기업 Lindt 등은 미국 수입 가격 10~20% 인상 예상
 -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활용해 프리미엄 카테고리 방어할 전망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외국인 투자 유치 감소세) 스위스에 최대 투자군을 형성하는 홀딩(지주회사) 분야의 글로벌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유리한 조세 정책과 해외 투자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입에 규제가 거의 없어 글로벌 기업들이 스위스를 해외 사업을 위한 홀딩/지주회사 입지로 활용

스위스의 해외 투자 유입 동향

(단위: 십억 스위스 프랑)

구분	2022년	2023년
유입(Flow)	-63.2	-49.1
누적(Stock)	1,028.3	930.3

주1: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NB : Schweizerische Nationalbank)은 스위스의 해외 투자 및 스위스 내 외국인 투자와 관련 매년 12월 15일 작년 한해 통계치를 발표(반기별, 분기별, 월별 통계치 없음)

주2: '25년 9월 기준, "가장 최근 수치"는 '23년 연간 통계이며, '24년 및 '25년 연간 통계는 각각 '25년 및 '26년 12월 15일경 발표 예정
자료: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NB)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위스 정부의 법인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점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해외 직접투자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지주회사가 스위스 내 해외투자 유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외 화학 산업(제약 포함), 전기·에너지·시계·광학 산업, 금속·기계 산업, 은행업, 보험업 등

스위스의 주요 산업군별 해외 투자('23년 및 누적(Stock) 기준)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산업	투자 유치 규모(누적 기준)	전체 중 비중
홀딩(지주회사)	395,247	42.5%
화학/플라스틱	99,719	10.7%
전기/에너지/광학/시계	52,034	5.6%
금속/기계	22,994	2.5%
은행	22,199	2.4%

주: '25년 9월 기준 '23년 통계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 '24년 및 '25년 연간 통계는 각각 '25년 12월 15일 및 '26년 12월 15일경 발표 예정

자료: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NB)

□ 스위스의 對韓 투자 현황

- 스위스의 對韓 투자는 코로나 팬데믹 후반기인 '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 큰 폭 증가
 - 보석, 시계, 화장품 등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소비재 제조사의 對韓 증액투자가 주목받고 있음
 - * L社(고급 화장품) : 50백만 달러, B社(고급 시계) : 17백만 달러 등

스위스의 對韓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Q.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262	162%	172	-34.3%	84	-51.1%	136	n/a
신규 건수	30	25%	33	10%	17	-48.5%	18	n/a

자료: INSC

□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진출

-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도 코로나 팬데믹 후반기인 '22년 큰 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작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
 - 스위스 투자 진출 우리 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한 산업의 판매법인 주를 이루며,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경우 세계를 선도하는 스위스 제약 산업의 생태계에 참여를 위한 진출이 증가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Q.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124	130%	21	-83%	23	9.5%	11	n/a
신규 건수	17	88.9%	12	-29.4%	16	33.3%	1	n/a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CRO 기업 P사, 스위스 제약바이오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국내 기업 P사는 면역 질환 및 인간화 동물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비임상 CRO로 유럽 진출 모색
- (성공 사례) 유럽 내 낮은 인지도와 현지 네트워크 부족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강국 스위스의 바이오텍 중심지 바젤에 법인 설립
 - 대표행사 Swiss Biotech Day 참석 및 주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25년 현지기업 A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스위스를 거점으로 Bio Europe 2025에서 공동 홍보 추진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시사점) 비유럽 기업은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바이오텍 중심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파트너와 공동 대응을 통해 중장기적인 진출 기반 확대 성공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높은 물가 및 임금 수준) 스위스의 낮은 조세와 규제가 적은 親기업 환경은 유리하나 높은 물가 및 임금 수준이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OECD, Handelsblatt 등에 따르면 스위스의 물가 및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 '24년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138,634 달러), 아일랜드(105,456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임(스위스 : 104,523 달러).
- 스위스는 면적은 작으나(우리나라 국토의 약 40%)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트로만어 등 4개의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언어가 시장 진입의 장벽
 - 스위스 인구 중 독일어 사용자 비중이 가장 크며(약 63.5%), 이어 프랑스어(22.5%) 순

2. 유망 산업

가. 제약 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 헬스

□ 개요

- 선정 배경

- 스위스의 65세 이상 인구는 '24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37.4명으로 '45년에는 27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고령화 심화에 따라 심혈관·정형·청각·치과 관련 의료기기 수요 증가 예상 ('25.4. 스위스연방통계청(FSO))
- 스위스 정부는 디지털환자기록(EPR) 의무화와 및 병원·보험 연계 디지털 헬스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으로, 의료 데이터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수요 확대세 지속
- '가정 기반 진료' 부문 지출이 '50년까지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디지털 치료기기(DTx) 및 원격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기대('25.7. 스위스연방재무부(FDF))
- 첨단치료의약품(ATMP)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차세대 의약품 개발 확산에 따라 고순도 원료(API·HP-API), 공정소모품, 센서 등 핵심 중간재 수요 증가세 지속
- EU Annex 1* 무균 제조 지침 강화로 제약 공정의 디지털화 및 품질관리(QA/QC) 인력·설비 수요 확대
* Annex 1 : EU의 글로벌 공통 제조·품질 관리 기준 중, 무균 의약품 제조에 특화된 세부 규정으로 '23년 8월부터 무균 제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AI 기반 진단·수술·공정 분석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및 제약 생산 자동화 장비 수요 확대 추세

- 현지 산업 규모 및 특징

- 스위스는 바젤(Basel), 추크(Zug), 취리히(Zurich)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본사, 연구개발(R&D), 제조 및 CDMO 거점*, 의료기기 제조사,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대학·병원이 결합된 통합 생명과학 클러스터 형성
* 론자(Lonza) 등 글로벌 선도 CDMO 기업이 스위스를 전략적 허브로 활용
- 산업 전반에서 공정 디지털화·규제 정합성 강화 기조 지속, 이에 대응해 기업들의 품질·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 제약 분야에는 비만·대사·면역 질환 중심의 파이프라인 강화 및 적극적 M&A 전략으로 R&D 투자가 확대되는 구조
- 의료기기 분야는 진단·이미징·수술·보청기·임플란트·원격 모니터링 영역의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 중
-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IT·바이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 전반에 확산 중

□ 무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의약품 수출은 '25년 8월 기준 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 미국(33.3%), 독일(10.8%), 슬로베니아(8.9%)가 주요 수출국
- 유기화학·고순도 원료 및 공정 소모품 등 수입은 32억 달러, 전년 대비 4.3% 증가. 독일(39%), 미국(10%), 이탈리아(7.7%)가 주요 공급국이며, 한국은 0.3% 비중으로 32.5% 증가
- 의료기기 수출은 243억 달러, 전년 대비 6.3% 증가. 미국·EU 시장 비중이 40% 이상이며, 고부가 완제품 중심
- 진단 소모품·의료 로봇 부품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로, 고령화 및 만성 질환 확대에 따른 진단·치료 수요 반영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완제·원료·바이오 의약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67,305	74,400	82,304	100.00	100.00	100.00	10.62
1	미국	20,920	23,667	27,386	31.08	31.81	33.27	15.72
2	독일	7,056	7,679	8,893	10.48	10.32	10.81	15.81
3	슬로베니아	4,218	5,534	7,356	6.27	7.44	8.94	32.94
4	중국	3,472	4,245	4,846	5.16	5.71	5.89	14.15
5	이탈리아	3,123	2,990	2,872	4.64	4.02	3.49	-3.93
6	일본	2,461	2,936	2,667	3.66	3.95	3.24	-9.14
7	프랑스	2,306	2,273	2,133	3.43	3.05	2.59	-6.13
8	영국	1,600	1,751	1,644	2.38	2.35	2.00	-6.12
9	벨기에	1,688	1,634	1,594	2.51	2.20	1.94	-2.46
10	캐나다	1,828	1,492	1,570	2.72	2.01	1.91	5.25
28	대한민국	570	591	628	0.85	0.79	0.76	6.23

주: 품목은 HS코드 3002, 3003, 3004, 3006
 자료: GTA('25년 9월)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유기화학·고순도 원료 및 공정 소모품(센서 포함)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3,042	3,032	3,162	100.00	100.00	100.00	4.30
1	독일	1,222	1,204	1,241	40.19	39.73	39.24	3.01
2	미국	315	306	333	10.36	10.08	10.52	8.91
3	이탈리아	220	224	243	7.25	7.40	7.70	8.60
4	프랑스	172	189	203	5.67	6.22	6.41	7.37
5	중국	123	118	145	4.04	3.88	4.60	23.55
6	영국	134	148	136	4.42	4.89	4.30	-8.31
7	오스트리아	138	134	115	4.54	4.42	3.64	-14.11
8	네덜란드	96	106	100	3.16	3.50	3.15	-6.15
9	스웨덴	79	73	90	2.59	2.39	2.84	23.90
10	일본	84	85	84	2.75	2.81	2.66	-1.25
26	대한민국	7	8	10	0.22	0.26	0.32	32.54

주: 품목은 HS코드 2900, 3914, 3821, 3421, 5911, 8419, 8479, 9026, 9027

자료: GTA('25년 9월 23일)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의료용 기기·정밀기기(진단, 수술, 임플란트, 보청)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22,913	22,892	24,325	100.00	100.00	100.00	6.26
1	미국	4,971	5,272	5,721	21.70	23.03	23.52	8.51
2	독일	3,786	3,806	4,025	16.52	16.62	16.55	5.77
3	네덜란드	2,846	2,545	3,047	12.42	11.12	12.53	19.74
4	중국	1,697	1,848	1,738	7.41	8.07	7.14	-5.97
5	벨기에	1,211	1,119	1,011	5.28	4.89	4.16	-9.71
6	프랑스	932	878	959	4.07	3.84	3.94	9.20
7	이탈리아	733	769	848	3.20	3.36	3.49	10.39
8	일본	892	678	719	3.89	2.96	2.96	6.10
9	아일랜드	447	551	623	1.95	2.41	2.56	13.11
10	영국	537	522	547	2.34	2.28	2.25	4.84
15	대한민국	337	316	289	1.47	1.38	1.19	-8.68

주: 품목은 HS코드 9018, 9019, 9021, 9027, 3822

자료: GTA('25년 9월 23일)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노바티스(Novartis), 로슈(Roche) : 비만·대사·면역 질환 파이프라인 강화, 디지털 CMC(화학·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QMS) 내재화로 생산 효율성 20% 향상 목표. 두 기업은 미국·유럽 생산 네트워크 최적화와 함께 AI 기반 공정 분석(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PAT) 도입 확대
- Lonza(Visp 등) : 론자는 ADC* 및 ATMP**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25년까지 수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투자를 계획, 멀티테넌트 생산라인 운영을 통해 중소 바이오테크 수요에 대응
 - *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 특정 항체에 항암제 등 독성 약물을 결합시켜 표적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차세대 정밀 의약품
 - ** ATMP(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첨단 치료 의약품) : 세포치료제(Cell Therapy), 유전자 치료제(Gene Therapy), 조직공학체제(Tissue-engineered products) 등을 포괄하는 EU 의약품 규제에서 정의된 세포·유전자·조직공학 기반 의약품 범주
- 바켄(Bachem), 지그프리트(Siegfried) : 펩타이드 및 HP-API(고활성 원료 의약품) 분야 선두, '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각각 25%, 15%, 고난도 원료 개발 및 최종 의약품의 활성 성분인 원료의약품(API)을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반제품인 중간체 개발에 집중('25.9. 각 기업 연간 보고서 및 보도자료, 취리히무역관 종합)
- 이슈
 - 공정 디지털화(배치 최적화, 데이터 무결성 관련 공정분석기술(PAT)) 수요 급증
 - 규제 정합성(GMP, Annex 1 무균지침, 데이터 무결성) 및 QA 인력 수요 상시화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고령화·만성 질환 확산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구조
 - 고령 인구의 증가로 치아·청력·관절·심혈관 등 노년층 중심의 치료·보조 의료기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스위스는 고품질 의료서비스 체계와 함께 임플란트·보청기·정형 보조기기 분야 글로벌 제조사 본사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정밀부품·소재·센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공급망 협력 수요가 지속 발생하는 구조
- AI 기반 진단, 로봇 수술, 원격 모니터링의 빠른 확산으로 헬스 ICT·센서·플랫폼 협력 기회
 -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EPR(전자 환자기록) 의무화 정책과 병원·보험 간 데이터 연계 확대로 AI 영상진단·원격의료·수술로봇 등 헬스 ICT 기술 도입 속도 가속화 중
 -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의 융합 수요 증가로, 정밀센서·데이터 플랫폼·의료용 IoT 모듈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센서·반도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공동 개발 진출 가능성 확대

- 디지털 CMC 솔루션, 공정 센서, 품질관리 SW, 자동화 장비 등에서 한국 IT·바이오 기업 협력 기회
 - 생산·품질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CMC 솔루션, 공정 센서, 데이터 무결성 관리 SW에 대한 IT·바이오 융합형 기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 자동화·데이터 처리 강점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 기회 확대 중

나. ICT·AI·사이버보안·로보틱스 등 디지털 전환

□ 개요

- 선정 배경
 - 스위스 연방정부는 ‘디지털 스위스 전략(Digital Switzerland Strategy 2025)’을 통해 AI·정보·사이버보안·오픈소스를 디지털 전환 4대 중점과제로 선정, 부처·칸톤(주)별 실행 과제로 분산 추진 중(*25.1. 연방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OFCOM))
 - '25년, 연방평의회 AI 기술의 국내 적용을 위한 규제·정책 옵션을 제시하며, 산업·의료·금융 부문에 신뢰 가능한 AI 도입 촉진
 - 공공·산업부문 디지털 전환을 동시 추진하며, AI 기반 산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수요가 동반 확대되는 구조
 - (정부 재원 집행기관) 스위스혁신청(Innosuisse)은 ‘Swiss Accelerator’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SME)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50만 스위스 프랑(CHF) 규모의 지원 사업 운영 중(*25.3. Innosuisse Annual Report 2025)
- 현지 산업 규모
 - 취리히(ETH Zurich,UZH)-루가노(IDSIA)-로잔(EPFL)-바젤(디지털 헬스)을 축으로 AI·딥테크 허브 구축
 - 제조·제약·금융의 디지털 전환(OT/IT 융합, 데이터 거버넌스) 수요가 시장 견인

□ 무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스위스 하드웨어(산업용 로봇, 부품, ICT 장비) 수출은 '25년 8월 기준 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 독일(25.4%), 미국(12.6%), 중국(6.7%)이 주요 수출국
 - 스위스의 서버, 반도체, 센서 등 고사양 하드웨어 및 H/W*·컴포넌트** 품목 수입은 '25년 8월 기준 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 중국(26.6%), 독일(21.2%), 미국(5.7%)이 주요 수입국
- * H/W(Hardware) : 서버·반도체·센서 등 물리적 장치 및 부품
 ** 컴포넌트(Component) : 모듈·부속 장치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하드웨어(산업용 로봇, 부품, ICT 장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4,454	4,440	4,648	100.00	100.00	100.00	4.70
1	독일	1,102	1,043	1,179	24.75	23.49	25.37	13.05
2	미국	610	615	584	13.69	13.86	12.57	-5.05
3	중국	311	300	311	6.99	6.76	6.69	3.63
4	프랑스	209	255	233	4.69	5.74	5.02	-8.47
5	이탈리아	175	148	204	3.92	3.33	4.39	37.87
6	네덜란드	206	198	184	4.62	4.47	3.95	-7.52
7	영국	153	159	161	3.43	3.58	3.46	1.16
8	폴란드	81	96	116	1.82	2.17	2.49	20.32
9	오스트리아	83	96	114	1.86	2.16	2.45	18.67
10	스페인	115	117	111	2.59	2.62	2.39	-4.66
23	대한민국	55	44	43	1.22	0.99	0.91	-3.09

주: 품목은 HS코드 8479, 8501, 8504, 8537, 9031, 8471, 8571, 8526, 8528

자료: GTA('25년 9월 23일)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서버, 반도체, 센서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7,642	6,904	7,098	100.00	100.00	100.00	2.81
1	중국	1,977	1,580	1,885	25.87	22.88	26.56	19.32
2	독일	1,738	1,689	1,502	22.74	24.47	21.16	-11.10
3	미국	453	412	402	5.93	5.97	5.66	-2.51
4	체코	275	394	333	3.60	5.71	4.70	-15.42
5	폴란드	200	219	252	2.61	3.18	3.56	15.07
6	타이완	282	271	244	3.69	3.93	3.44	-10.06
7	이탈리아	236	248	239	3.09	3.59	3.37	-3.48
8	프랑스	209	216	221	2.74	3.12	3.11	2.49
9	헝가리	172	160	219	2.25	2.32	3.09	36.87
10	오스트리아	208	182	155	2.73	2.64	2.18	-15.13
29	대한민국	337	316	289	1.47	1.38	1.19	-8.68

주: 품목은 HS코드 3822, 3006, 4015, 3926, 901890, 902790, 9022, 902290, 9018, 8479

자료: GTA('25년 9월 23일)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구글(Google) : 취리히 AI·클라우드 연구센터(유럽 최대) 운영, ETH와 머신러닝·GenAI 공동 연구
- 애플(Apple) : 취리히 Vision Lab에서 비전·멀티모달 AI 집중, 현지 스타트업 인수(FaceShift 등)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25년 취리히 AI 연구소 설립, Copilot 고도화 추진
- 라티스플로우(LatticeFlow), 다이다린(Daedalean), 신사라(Synthara) : AI 품질관리, 자율주행, 반도체 설계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성장
- 현지 생태계는 빅테크 연구소와 대학·스타트업 협력이 밀접하게 전개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신뢰 가능한 AI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 수요 확대
 - 스위스 및 EU의 AI 윤리·데이터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신뢰 가능한 AI 시스템에 대한 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AI 신뢰성 검증·데이터 보호·모델 보안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역량이 현지 정책 방향 및 산업 수요에 부합
- 산업용 로봇·사이버보안 협력 기반 확대
 - 스위스는 자동화·로봇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로봇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 해외 기술 및 국제 협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한-스위스 간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
 - 스위스혁신청(Innosuisse)과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력 MOU('23년 이후 체결)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AI·사이버보안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여건 형성
 - '25년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EUREKA 프로그램 내 한국 기업 참여 증가 등으로 양국 간 기술 협력 파이프라인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출감소와 무관하게 협력형 진출 가능성이 확대 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산 기자재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라도, 공동 R&D·솔루션 연계 수출·기술 제휴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존재

다. 에너지 인프라 안전 및 설비 현대화

□ 개요

- 선정 배경
 - 스위스의 '23년 최종 전력 소비는 56.1TWh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망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스위스 전력망 운영사 스위스그리드(Swissgrid)는 스위스연방에너지청(SFOE)의 '에너지 전략 2050(Energiestrategie 2050)', '전력망 시나리오 프레임워크(Scenario Framework)'에 따라 총 약 25억 스위스 프랑(CHF)* 규모를 투입해 스위스 전역 19개 구간의 송전 인프라 현대화 및 용량 확충 추진 중

* 이 중, 약 10억 스위스 프랑(CHF)은 노후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약 15억 스위스 프랑은 신규 송전선 구축 및 기존 노선의 용량 증설에 투입될 예정

- 겨울철 수급 불안과 전력 수입 의존 심화로 스마트 그리드·에너지 저장장치(BESS)·고효율 송배전 장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탈원전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및 안전성 강화 설비 투자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전력 안보 차원의 원전 유지 필요성 부각
- 이에 따라 정비, 방사선 계측 장치 개보수 등 원전 기자재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관련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임
- 에너지 정책·프로젝트 발주는 스위스연방에너지청(SFOE) 및 스위스그리드(Swissgrid)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바덴(Baden)·아르가우(Aargau) 등 에너지 클러스터 지역의 발주·정부 기관 동향 모니터링이 중요

• 현지 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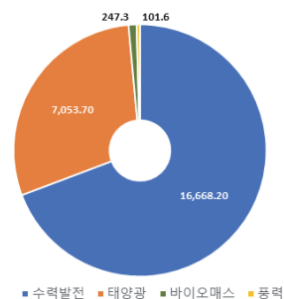
- 전력 생산은 수력(약 60%), 원자력(약 30%), 신재생에너지(약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 및 송전 인프라 운영은 국가 송전망 운영사 스위스그리드(Swissgrid), 발전 및 유통사 악스포(Axpo)·BKW, 전력 거래 및 에너지 서비스 기업 알피크(Alpiq) 등 주요 전력 기업이 주도

'24년, 재생에너지 유형별 생산량 및 비중

구분	설비용량	발전소 수
수력발전	16,668.2	1,502
태양광	7,053.7	282,962
바이오매스	247.3	434
풍력	101.6	69

자료: 스위스연방에너지청(SFOE)

(단위: MW, %)



□ 무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스위스는 고전압 변압기·보호계전기·자동제어기기 등 고부가 완제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25년 8월 기준 1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 독일(23.4%), 미국(13.2%), 중국(8.5%)이 주요 수출국
- 스위스의 관련 품목 수입은 설비 신·증설이 아닌 원전 계속운전 및 설비 현대화에 따른 안전·계측 기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5년 8월 기준 68억 8,478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증가. 독일(32.5%), 중국(10.1%), 이탈리아(8.6%)가 주요 수입국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전력기자재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10,650	10,838	11,180	100.00	100.00	100.00	3.16
1	독일	2,662	2,622	2,621	24.99	24.19	23.44	-0.03
2	미국	1,270	1,486	1,474	11.92	13.71	13.18	-0.83
3	중국	1,024	960	952	9.61	8.86	8.52	-0.84
4	네덜란드	515	479	527	4.84	4.42	4.71	10.05
5	이탈리아	403	433	457	3.78	3.99	4.09	5.61
6	프랑스	398	401	435	3.74	3.70	3.90	8.54
7	영국	348	392	402	3.27	3.62	3.59	2.51
8	오스트리아	316	325	319	2.97	3.00	2.85	-1.88
9	인도	214	208	256	2.01	1.92	2.29	23.12
10	폴란드	208	235	250	1.95	2.17	2.24	6.57
12	대한민국	206	198	186	1.93	1.83	1.66	-5.92

주: 품목은 HS코드 8401, 8402, 8404, 8406, 8409, 8413, 8419, 8420, 8486, 8501, 8502, 8504, 8535, 8536, 8537, 8544 기준

자료: GTA('25년 9월)

'23~'25년 8월 스위스 국가별 전력기자재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증감률(%)
		'23년	'24년	'25년 8월	'23년	'24년	'25년 8월	'25년/'24년
	전체	7,302	6,753	6,812	100.00	100.00	100.00	0.87
1	독일	2,530	2,274	2,212	34.65	33.67	32.47	-2.71
2	중국	764	614	687	10.46	9.09	10.08	11.95
3	이탈리아	593	591	586	8.12	8.75	8.60	-0.89
4	미국	459	471	461	6.28	6.97	6.77	-2.06
5	프랑스	309	311	320	4.23	4.60	4.70	2.87
6	오스트리아	319	316	281	4.37	4.67	4.13	-10.85
7	폴란드	229	222	262	3.13	3.29	3.84	17.83
8	체코	194	212	211	2.65	3.13	3.10	-0.30
9	일본	162	134	144	2.22	1.98	2.12	7.64
10	네덜란드	145	135	132	1.99	2.01	1.95	-2.14
29	대한민국	30	33	28	0.42	0.49	0.41	-15.56

주: 품목은 HS코드 8401, 8402, 8404, 8406, 8409, 8413, 8419, 8420, 8486, 8501, 8502, 8504, 8535, 8536, 8537, 8544 기준

자료: GTA('25년 9월)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에이비비(ABB) : 바덴(Baden) 본사 중심으로 전력·자동화 기자재 핵심 생산 거점 운영. 변압기·보호 계전기·자동제어기 등 원전 수명 연장용 고신뢰 기자재 공급 확대, 베츠나우(Beznau)·라이프슈타트(Leibstadt) 원전 설비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중
- 히타치(Hitachi) : HVDC(고전압직류) 및 그리드 보호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 원전 및 재생에너지 통합 제어 플랫폼 개발, SMR(소형모듈원전)용 디지털 보호 시스템 R&D 수행 중
- 지멘스(Siemens) : 발전·배전 기자재 및 방사선 계측·모니터링 장비 공급 확대. 유럽 내 장기운전 원전 대상 실시간 안전제어·계측 시스템 표준화 프로젝트 참여 중
- 현지 산업 생태계는 글로벌 전력기자재 기업과 국가 원자력감독기관·대학·연구소 간 기술 협력이 밀접하게 전개. 디지털 모니터링·AI 기반 계측 기술·고정밀 방사선 측정 시스템 등 첨단 융합형 솔루션 중심의 혁신 생태계 형성 중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설비 수요 확대
 - '35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35TWh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 투자 본격화
 - 태양광·수력·풍력 연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전력제어·계측·보호·통합 운영 SW 등 시스템형 기자재 수요 확대
 - 스마트그리드 및 ESS 연계형 기자재의 현지 공급망 참여 가능성 증가
- 디지털 모니터링·AI 기반 계측 기술 수요 증가
 -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ENSI)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Ü) 강화로 디지털 감시·예측정비(CBM) 시스템 도입 확대 중
 - IoT·AI를 활용한 실시간 상태 감시, 데이터 기반 예방정비 솔루션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 국내 ICT·센서·AI 계측 기술과 결합 시 차별화된 수출 기회 형성 가능
- 고사양·환경 적응형 기자재에 대한 수요 지속
 - 알프스 지역 특성상 내한·내설·내진 등 고내환경 성능이 요구됨.
 - ESS, 모듈형 인버터, 고IP등급 전력제어장치 등 극한 환경 대응형 제품군에 기회 존재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 협정) 한-스위스 GMP 상호 신뢰 협정 체결에 따른 바이오 협력 확대

- 국가 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인정하는 협약으로 한국 식약처가 발급한 GMP 증명서로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의 GMP 평가 면제
 - 한국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따른 결과로 양국의 제약 바이오 협력 확대 기대



참고 사례

- (개요) '한-스위스 바이오 협력 파트너십' 사업 참가를 통한 스위스 주요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 발판 마련
 - 매년 상반기 중 현지 대표 바이오텍 전시회인 'Swiss Biotech Day' 내 한국관 운영 및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파트너링 지원
 - 수출입뿐만 아니라 R&D 협업 등 폭넓은 파트너 발굴이 가능한 사업으로 GMP 협정 활용 필요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최근 서울시, 포항시, 한국바이오협회 등 양국 바이오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프로젝트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프리미엄 스킨케어 B2B 투자

-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투자 주요 협력 사례



성공 사례

- (개요) 국내 기업 S사, 스위스 명품 화장품 브랜드 P사 인수
 - '20년 7월 P사 지분 100% 인수계약 체결
- (목적) 최고급 스킨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 (시사점)
 - 국내 기업이 해외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를 인수한 첫 사례
 - 국내 기업 S사의 유통망을 B2B에서 B2C로 확장하여 볼륨 확대
 - 강력한 럭셔리 브랜드 확보로 해외에 신규 거점 마련 및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시장 공략 본격화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7
2. 진출전략	59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미국의 대스위스 고율 관세(39%) 부과
- EU-스위스 양자 협정 변화 및 관계 재정비
- 신규 원전 허용을 위한 원자력법 개정, 탈원전 사실상 철회
- 'Digital Switzerland 2025' 정책 실시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EU 수준의 규제에 부합·스위스 고유의 ESG 정책 확산
- 이커머스 '플랫폼 과세' 시행



경제(Economic)

- (경제성장률) '26년,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1.2% 기록 예상 (금리) 물가 안정으로 '25년 25bp 인하한 0.0% 기록, 추가 인하 전망
- (환율) '25년 9월 기준 스위스 프랑화 가치는 5.92% 상승한 가운데 지속적인 상승 전망에 제조업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
- (실업률) 미국 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 의존도 높은 제조업의 고용 둔화 심화로 '26년 3.2% 수준으로 상승 예상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 심화로 보건 지출·보험료 부담 증가
- AI 생태계 조성·디지털 신분증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소유보다 이용을 장려하는 구독경제 확산
- 고품질·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 확대



기술(Technological)

- 2011년 이후 글로벌 혁신 지수 1위 국가 14년 연속 유지
- 2025년 기준 25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R&D 투자(GDP 대비 3.4%)
- 취리히연방공대(ETH), 로잔연방공대(EPFL)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배출하는 우수한 인력 등 탁월한 연구 환경 보유
- MS의 AI 연구소 설립, 애플의 비전랩, 구글의 유럽 최대 규모 AI·클라우드 연구센터 운영 등 글로벌 테크기업 진출 활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첨단산업 및 기계·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 및 우수한 기술력
-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활발한 양국 지자체·학계·산업계 교류 및 한국 AI 기술에 대한 현지 관심
- 한류 열풍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K-소비재(뷰티,푸드)수요 증가

약점(Weakness)



- 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지 산업 구조
- 인건비 등 고비용으로 인한 직접 진출 애로
- MOQ를 맞추기 어려운 소규모 내수 시장
- 복수 공용어, 비EU 국가로 EU 시장과 다른 인증 체계 등 진입장벽

기회(Opportunity)



- 바이오 헬스 산업의 높은 국제 협력 수요
- AI/DT, 에너지, 첨단산업의 정책적 지원 강화
- 스위스의 Horizon Europe 연구 협력 자격 회복
- 중국 공급망 및 관세 관련 대미 수출 리스크에 따른 수입 대체 수요
- 국가 위상 제고로 K-소비재 유통상 증가

위협(Threat)



- 미 고율 관세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 주요 교역국(EU, 중국) 경제 부진으로 수요 약화
- 강화되는 ESG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 스위스 프랑화 강세로 현지 비용 증가
- 스위스-EU 양자 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IVD(체외진단) 분야 MRA(상호 인증) 미갱신으로 추가 인증 취득 부담 구조 지속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현지 기업 수요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기관의 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력 기회 발굴
- 한류 열풍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적극 활용



바이오·첨단 산업
기업 수요
확보·집중 공략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고물가 지역에서의 가격·품질 적격 포지셔닝
- 미·중 공급선 대체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한국의 첨단 기술 강점 부각 및 기회 모색



주요 수입국(유럽·중국)
대비 차별화되는
가격·품질 전략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KOTRA-현지 플랫폼 활용으로 초기 고비용 대응·소프트랜딩 추진 및 파트너 발굴
- 유망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사전 시장 조사, 파트너 협업 등 중장기적인 공략 추진



파트너 발굴,
사전 조사 등 점진적
시장 진출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소규모 스위스 시장을 EU 진출 테스트베드로 활용
- 유망 벤더/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대형 유통망(PB 중심), 중소형 유통망 진출



주요 유통망
벤더 협업, PoC사업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바이오 헬스 협력 채널 활용하여 시장 소프트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ss Biotech Day 등 현지 산업전문화,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공동 R&D 프로그램, 양국 지자체 지원사업 등 협업 기회 적극 활용 - 신약 및 기술 라이선싱 아웃,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수주, 공동 R&D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협력 다각화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수요 급등 및 탈원전 철회에 따른 현지 시장 신규 수요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한 글로벌 전력 기업의 R&D 협력, 기술 이전, 부품 소싱 등 협력 수요를 발굴, 사업 추진 - 정부의 송배전망 확충·현대화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산업 투자 급증 - Hitachi Energy, Siemens Energy, ABB 등 현지 전력 분야 글로벌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마련
K-뷰티, K-푸드 등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망·벤더 협업 및 EU 시장 진출 테스트베드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주요 유통망·벤더와 협업, PB상품 중심의 소비재 시장 진출 - 한류로 더욱 높아진 K-푸드, K-뷰티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파악 및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으로 시장 공략 - 스위스 판매 래퍼런스 획득으로 EU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전략 ①

양국 바이오 헬스 협력 채널 활용하여 시장 소프트랜딩



전략 수립 배경

- 바젤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글로벌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 1,200여 개 소재한 유럽의 제약 바이오 허브로 협력 수요 다대
 - 항암제 등 신약 개발, 위탁연구개발생산(CDMO), AI를 활용한 시스템 효율화 등
- 최근 국내 지자체 진출 프로그램 활성화
 - 서울시, 포항시 등 지자체와 한국바이오협회와 같은 유관 기관에서 양국 바이오 협력 강화. 현지에서 또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활용 필요

□ 현지 동향

스위스 바이오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노바티스(Novar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개의 신물질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혁신 의약품 중심 사업 재편 지속, 바이오 의약품 및 면역 치료제 분야 집중하는 한편 인도 사업 구조조정 추진 - 연구개발에 93억 스위스 프랑(USD 118억) 투자
로슈(Roch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매각을 통해 연구개발 및 혁신치료제·차세대 기술 플랫폼 집중 전략 추진 - 연구개발에 130억 스위스 프랑(USD 165억) 투자
론자(Lon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슈(Roche)의 미국 바카빌(Vacaville) 생산시설 인수(12억 달러), 대규모 생산 역량 및 고용 확대하는 한편 수익성이 낮은 캡슐 및 기능성 원료 사업 부문을 매각
산도즈(Sando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바티스(Novartis)에서 독립 후 바이오시밀러, 고부가가치 제네릭 중심의 생산 인프라와 CDMO 기능 확대, 28개 바이오시밀러·450개 제네릭 파이프라인 보유

자료: 기업 홈페이지

- (노바티스) '24년, 노바티스 R&D 투자 규모는 약 93억 달러('25.3. 노바티스 연간 보고서 2025)
 - 전년 대비 약 11.9% 감소한 수치로, 구조적 사업 재편과 파이프라인 운영 효율화에 따른 일시적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
 - R&D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핵심 치료 영역과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유지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 확보 및 파이프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별적 투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미국 내 신규 연구 및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5년간 2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미 관세 대응 차원에서도 대미 투자 확대가 예상
- (로슈) '24년, 로슈의 R&D 투자 규모는 약 146억 달러로 매출 대비 21.5% 차지('25.3. Roche Annual Report 2025)
 - 전년 대비 약 9.9%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제약사 중 최상위권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해당

- 핵심 치료 영역(종양·면역·희귀질환)과 차세대 기술 플랫폼 중심의 연구역량 확장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 R&D 비중은 매출 대비 약 22%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어, 높은 연구집중도를 보이는 구조로 분석됨
- (양국 교류)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 국내 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스위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 시장 진출 활발
 - (KOTRA) '23년 5월, KOTRA 한-스위스 제약 바이오 파트너링 추진
 - * 스위스연방경제청(SECO), 론자(Lonza), 취리히공대(ETH), 로슈(Roche) 등 스위스 측 기관/기업 31개사,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6개사 참석
 - * 양국 제약바이오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발표 및 스위스 스타트업 글로벌 M&A 지원 세션, 일대일 방문 미팅 등 추진
 - (KOTRA·포항시) '24년 이후 매년 KOTRA-포항시에서 'Swiss Biotech Day' 전시회 내 한국관 운영 및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협력포럼' 개최
 - * 국내 기업 10~15개사 참가/참관, 100건 이상의 개별 상담 진행. 스위스 기업/기관 초청 협력 포럼 참석 등 양국 바이오 헬스 교류 활성화 기여
 - * S-GE(스위스 무역투자진흥기관), 바젤대학교 등 현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요 기업 및 혁신 센터 현장 견학,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서울시) '22년부터 매년 한국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5~10개사 선정하여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 * (프로그램 지원 사항) ▲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 및 스위스·프랑스·독일 소재 VC와의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지원, ▲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 협업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 제공, ▲ 유럽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전략 코칭/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리 자문 제공, ▲ 바젤대학교 내 현지 사무공간 제공
 - (한국바이오협회) 스위스혁신센터(SIP) West(불어권 지역)과 MOU 체결

• 주요 법규/규정

- 의료기기·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수출 시 스위스 공인대리인(CH-REP) 지정 필수
 - 스위스에 거점을 두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스위스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위스 또는 리히텐슈타인 공인대리인을 지정하고 Swissmedic(스위스 의료기기 감독기관)에서 발급하는 등록번호(CHRN) 발급받아야 함
 - CH-REP 지정 수수료(CHF 3,000~6,000) 및 CHRN 발급수수료(CHF 200)가 발생하여 진출 검토 시 사전에 비용 부담 관련 바이어와 협의 추진
- 한국, 스위스와 GMP 상호 신뢰 협정 체결('20년 발효)로 협력 발판 마련
 - 국가 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인정하는 협약으로 GMP 실사 면제
 - 국내 GMP 시스템과 관리가 스위스와 동등한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 가능
 - 향후 실사 절차 생략으로 양국 제약 시장 진출 시 시간과 비용 단축 가능

□ 유망 품목

-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기반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 스위스 주요 제약기업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신약 개발 전주기에 통합하며, 정밀 의료와 R&D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 중
 - 특히 생성형 AI, 실세계데이터(RWD), 병리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임상 설계 및 진단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 기술 기반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솔루션과 AI는 신약 개발 생애주기의 전략적 혁신 수단으로 작동 중
 - * 후보물질 탐색, 임상시험 설계, 진단·예측 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 중
 - * 생성형 AI, 병리 이미지 분석, 실세계데이터(RWD)* 기반 기술은 신약개발의 정밀도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견인함
 - * 노바티스(Novartis), 로슈(Roche) 각각 외부 협업 중심의 기술 수용 전략과 자체 플랫폼 고도화 병행, 파이프라인 구성과 데이터 생태계 성숙도의 차이에 기반한 전략 구사 중
 - * 양사는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 병리 진단 자동화, 환자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정밀의료 구현 가속화 중
 - 스위스는 주변 국가에 비해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연방의회는 의약품 비용 상승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23년 9월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조례, 간호 서비스 조례 및 의약품 조례의 개정안을 승인함
 - 개정안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CHF)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24.1. 연방보건청(FOPH))
 - * 스위스 의약품 규제당국 스위스메딕은 '23년 6월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참조 의약품의 상호 호환성을 공식 확인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유리하도록 기본 조건 개선 중

□ 진출전략

- 시장 이해 및 진입전략 수립
 - 스위스 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바젤, 취리히, 로잔, 주크, 생갈렌, 등)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 의료연구 경쟁력과 산업군 분류
 - 진출 희망 기업은 자사 강점을 해당 클러스터 전략과 연계
- 현지 파트너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
 - 학계·산업·정부 연결 고리 형성 :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우수 병원, Bio-Technopark, BaseLaunch 등과 협업
 - 현지 VC 및 투자 네트워크 연계
 - 공동 R&D, 임상시험, 시제품 개발 등 파트너십 추진

- 제도, 인센티브, 규제 이해
 - 세제·R&D 정책 활용 : 법인세 감면, R&D 세액 공제, 혁신 바우처 등
 - 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 인증 절차 대비 : 우선심사제도 등 이용
 - 유럽 CE 마크, 미국식품의약청(FDA)과의 교차 인정 여부 검토
 - 인증 컨설팅 및 현지 시험 요구 사항 파악
- 스위스 글로벌 빅파마의 Open-Innovation 프로그램 활용, 세계 원료의약품 전시회(CPHI), Swiss Biotech Day, Bio Europe 등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여, 기술 및 제품 노출 기회 확보
 - 스위스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간의 네트워크인 KSBPN(Korea-Switzerland Bio Pharma Network)이 설립되는 등 한국인 활약이 증가하여 협업 기회 발굴을 통한 진출 기반 마련

※ Swiss Biotech Day 2025

- 행사명 : Swiss Biotech Day
- 기간/장소 : 2025년 5월 5일(월)~6일(화) / 스위스 바젤 Congress Center
- 주최 : Swiss Biotech 협회*
 - * 다양한 생명공학 기업을 회원사(600여 개)로 두고 있는 스위스 내 권위 있는 제약바이오 협회
- 전시 품목 : 제약바이오, 라이프사이언스 등
- 개최 면적 : 약 7,500㎡
- 참가 규모 : 3,000여 명(49개국)
- 특이 사항 : 2024년 최초로 한국관을 구성했으며 국내 기업 15개사 참가/참관

한-스위스 기술 협력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스위스 A사 - 국내기업 P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은 스위스 대표 바이오 행사인 Swiss Biotech Day 참여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지기업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SCA) 체결 • 각 사의 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솔루션 창출 체계 구축
스위스 T사 - 국내 Y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스위스혁신청(Innosuisse)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혈류 개선 및 혈관 신생을 통한 만성 상처 치료 기술을 위한 국제 공동 R&D 진행 • 양 기관의 기술적 상호 보완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싱이 아니라 양국 간 기술 융합과 공동 개발의 형태로 진행

전략 ②

전력 수요 급등 및 탈원전 철회에 따른 현지 시장 신규 수요



전략 수립 배경

-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조항의 철회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데이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전력난 심화로 송배전망 현대화,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전력량 확대에 따른 기자재, 발전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현지 시장 수요 적시 공략 필요

□ 현지 동향

- (송배전망) 확충 수요, 정책 추진 및 최신 이슈
 - (정책)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Energiezukunft 2050)」 및 '20년 승인된 「전력망 시나리오 프레임워크(Scenario Framework)」에 따라 송배전망의 단계적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
 - (확충 수요) 스위스의 전력망 운영사인 스위스 그리드(Swissgrid)는 「전력망 시나리오 프레임워크(Scenario Framework)」를 기반으로 「전력망 전략 2040(Strategic Grid 2040)」 수립 착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Grid Express」 제안 병행 추진 중
 - (송전망 확충 계획) 스위스그리드(Swissgrid)는 연방에너지청 전력망 시나리오에 따라 총 약 25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해 19개 구간 송전 인프라 현대화 및 용량 확충을 추진 중임. 이 중 약 10억 프랑은 노후 설비 교체, 15억 프랑은 신규 송전선 구축 및 증설에 투입될 예정
 - (배전망 확충 계획) 지역 배전망 운영자들은 전기차·히트펌프·재생에너지(태양광)의 설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용력 확대와 유연성 확보를 중심으로 배전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스위스 그리드(Swissgrid)와의 연계 하에 수요 기반의 최적화된 확장 전략 적용할 계획
- (원전) 건설 수요, 정책 및 최신 이슈
 - (국민투표) '17년 국민투표를 통해 도입된 신규 건설 금지 조항에 대해 연방 정부는 '24년 8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철회 제안을 발표함
 - (정책 이슈) 스위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조항의 철회를 위한 원자력에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개정안은 '25년 연방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음. 입법 과정에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계속 운전) 현재 스위스 내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은 총 2기(Beznau 1·2호기)이며, 운영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 없이 안전 기준 충족 시 계속운전 가능함.
 - (SMR 도입 가능성) 스위스 원자력법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일반 허가 신청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SMR 및 마이크로리액터는 법상 저위험 설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예외 적용 가능성 존재

• (재생에너지) 확충 수요, 정책 및 최신 이슈

- (국민투표) '24년 6월 9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68.7%, 반대 31.3%로 가결됨
 - (국가 전략) 수력에 편중된 기존 발전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규 재생에너지원 24.2 TWh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
 - (정책) '50년까지 전력 수요가 35~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감축과 원전 중단으로 약 50TWh의 전력 생산 감소가 우려됨.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내 전력 생산 증대를 목표로 관련 법안 제정
- * '34년까지 연간 11,400GWh의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 목표 설정
- (법개정) 연방정부는 '23년 「재생에너지 촉진법(Revising EnG)」을 개정하고 대규모 수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보조금 확대를 추진
 - (정책 조정 논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조정 논의가 제기됨

스위스 송배전 기자재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에이비비(A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최대의 전력 기자재 제조사 중 하나로, 초고압 송전·변전 관련 기자재를 전문으로 제조하며, 전 세계로 수출 중임. 최근 국내외 송전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데이터 센터·산업용 그리드 등 고기능 변압기 수요에 주력하고 있음
지이(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및 변성기 시스템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스위스그리드(Swissgrid), EU TSO, 수력 발전소 및 전력수요처 등과 유럽 그리드 안정화 사업의 주요 공급자로 활동 중
지멘스(Siem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 자동화 시스템 및 디지털 보호·제어기기, 계전기, 제어 시스템, 개폐장치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스위스 내 지자체 전력회사(EVU) 및 산업용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트렌치(Tren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압 전류·전압 변성기, 리액터, 개폐장치 부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스위스 및 유럽 초고압 송전망용 핵심 기기를 공급하고 있음

자료: 기업 홈페이지

스위스 원전 기자재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에이비비(A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용 변압기, 보호계전기, 제어·계측시스템, 차단기 등 고전압 기자재를 제조하며, 스위스 원전에서 보호계전 및 송전 안정성 확보용 기자재 공급을 하고 있음 현재 ABB Schweiz AG는 전 세계 계속 운전 원전 및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며, 유럽 다수 TSO 및 발전소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음. 특히, '20년 Hitachi와의 Power Grid 합작으로, Hitachi Energy Switzerland 브랜드로 일부 기자재 사업 영위 중
에밀에거 (Emile Eg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소 냉각수 및 수처리 계통에 사용되는 산업용 펌프를 제조하며, 고부식성·고내구성 환경에 최적화된 펌프 설계에 특화됨. 보조기기 중심이나, 기술 신뢰도가 높아 대형 설비 보완용으로 공급 확대 중
지이 그리드솔루션 (GE Grid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용 증기터빈, 원자로 계통용 보조설비, 전기 변성기 등을 생산하며, Gosgen 원전에 BWR 설계 및 설비를 진행했음. BWR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 중 하나로, 스위스 내 설계 기반 유럽형 BWR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시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함.

자료: 기업 홈페이지

스위스 재생에너지 기자재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에이비비(A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력 및 수력발전용 인버터, 전력변환장치, 보호계전기 등 전력 전자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해상풍력 및 스위스 내 수력발전소 다수에 장비 납품 중. 글로벌 기자재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엔히드라 (Enhyd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수문제어기기 및 디지털 수위관리 시스템 개발에 특화된 스타트업으로, 소형 수력설비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함. 스위스·오스트리아 지역 소수력 디지털 전환 사업에 적극 참여 중
에니와(Eni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배전망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가정·산업용 태양광+저장장치(PV+ESS) 솔루션을 제공함. 스위스 내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주도 기업으로, 유럽 가상발전소(VPP) 및 수요 반응 관련 공동 연구에 참여 중

자료: 기업 홈페이지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송배전망 수출 기회 및 진출 방안

- (유망 품목) 분산형 재생에너지(EV, 히트펌프) 확산으로 배전망 수용력 및 실시간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전환 및 통신형 기자재 수요 증가
- HS 8537(디지털 보호계전기, 통신 내장형 리클로저), HS 8536(사이버보안 대응 장비) 등 스마트 솔루션 수출 확대. IoT 기반 계측·제어기기 개발, Powertage Zurich·Ineltec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 진입 지원
- (경쟁 환경) 유럽 내 ABB, Siemens, Schneider Electric이 시장 주도, 한국산 기자재는 가격 경쟁력과 디지털·내환경성으로 차별화
- (공공 입찰) 스위스그리드(Swissgrid)는 대규모 프로젝트(예 : 송전선 확충, 변전소 현대화)를 연방 조달 플랫폼(swissgrid.ch 또는 simap.ch)을 통해 공고. 주기는 프로젝트별 연간 2~4회, 소규모 유지보수는 수시 공고
 - ▲ (제한 입찰) 특정 기술 사양(예 : 스마트그리드 호환, 고내환경성) 또는 긴급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에 한정해 입찰
 - ▲ (규제 준수) 비유럽 기업은 EN 50160(전력 품질), IEC 61850(스마트그리드 통신), CE(안전), RoHS(환경) 인증* 필요. 인증이 없을 시 입찰 참여 제한
 - * EN 인증 : 유럽연합 내 전기·전자, 기계, 건축,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제품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통합 기술 표준으로, EU 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이 해당 분야의 유럽 기술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인증
 - * CE :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의료기기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부여되는 안전·보건·환경 적합성 표시로, 제품이 유럽연합의 필수 규정을 만족했음을 나타내는 자율 인증 마크
 - * RoHS : 유럽연합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로,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규정

• 원전 수출 기회 및 진출 방안

- (유망 품목)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냉각 펌프, 터빈 부품, 제어케이블, 자동제어기기 등 범용 기기의 맞춤 설계 납품 가능성 존재. 고방사선 환경 대응 부품, 내진·내열 구조물 등 안전성 인증이 요구되는 고기능 품목 중심 진출 유효
- (진출 방식) 스위스 원자력안전감독청(ENSI) 승인하에 정기 평가(PSÜ) 및 기술입증(Sicherheitsnachweise)을 통해 기자재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ISO 19443(핵품질), EUR 인증, IAEA 기준(SSR-2/1) 등 국제 핵산업 인증 확보 필수
- (시장 채널) PSI(스위스 원자력연구소), Swissnuclear, ENSI 등과의 기술 교류 및 국제 워크숍을 통한 초기 협력관계 구축 필요. 국내 SMR 기업(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전력기술 등)과의 컨소시엄 연계, 제3국 공동 진출전략 병행 가능

- 재생에너지 수출 기회 및 진출 방안

- (유통 구조 및 진출전략) 스위스 재생에너지 기자재 시장은 지방 유틸리티 중심 발주, 중소 EPC·시공사 주도 구조로, 현지 EPC·설계사와의 파트너십 및 프로젝트 연계형 진출전략이 효과적임. Swissolar, Powertage Zürich 등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증 프로젝트 참여가 시장 진입에 유리
- (정책 기반 협력 채널 활용)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으로 인허가 간소화·보조금 확대가 추진 중이며, 현지 협회·실증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초기 진입 발판 마련 가능
- (유망 품목 : 태양광) 알프스 고지대 중심 신규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특수내환경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지지 구조물 등 특화 기술 수출 가능
 - * Alps 및 중서부 지역 중심의 소형 EPC·설치업체 대상 B2B 전략 필요
- (유망 품목 : 수력) 소형 Pelton형, Francis형 수차 부품(HS 8410.11, 8410.13) 수입 급증. 중소형 수력 부품 및 스마트 제어기기 진입 적합
- (유망 품목 : 풍력) 설치 기반 미니하나 발전기 25배 신규 건설 계획 발표, 중장기적으로 전력변환장치 및 내환경용 부품 수출 기회 확대 전망
- (유망 품목 : 바이오매스) 지역 CHP 시스템, 가스 분석기(HS 9027.30), 자동화 기계 등 연계 부품 중심 진출전략 유효

전략 ③

유통망 벤더 협업·EU 시장진출 테스트베드로 활용



전략 수립 배경

- 고소득, 높은 구매력 → 프리미엄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
 - 점차 자리 잡고 있는 한류열풍에 따라 K-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
-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 및 현지 주요 소비재 전시회 활용
 - Fantasy Basel, Zurich Popcon 등에서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대형 유통망(Coop, Migros)에서도 한국 제품의 진열 매대 점차 확대

□ 현지 동향

- (뷰티) 퍼스널 케어와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실수요 기반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
 - 2024년 스위스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27억 6천만 스위스 프랑(CHF)(약 4.75조 원)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 기록
 - '25년부터 '29년까지 연평균 1.9%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세그먼트는 스킨·헤어·바디케어, 색조, 향수, 남성·베이비 케어 등이며, 스킨케어가 약 2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함. '24년 전체 판매의 43.1%가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천연 성분, 지속가능성, 비건 인증 제품 등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
 - 한국 화장품은 기능성·감각적 패키징·합리적 가격으로 긍정적 인식 확산 중이며, 전문 바이어 연계 판매·테스트 마케팅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 (식품)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 이국적인 맛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아시아소스 판매 확대 등이 주요 트렌드로 꼽힘
 - 최근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화두로 떠오름
 - 소비자들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는 라면을 점점 더 선호하여 제조업체들은 글루텐 프리, 에어 프라이드, 선드라이 면과 같은 건강 지향적인 제품 출시
 -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 새로운 브랜드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 현재 스위스의 대형 유통 소매업체에서는 농심을 제외한 다른 한국 라면 브랜드의 입지가 아직은 미미한 상황
 - K-컬처의 부상으로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케이팝데몬헌터스' 내 '김밥' 등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을 취급하려는 유통상 또한 증가하는 추세

- (트렌드 전반)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중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가장 높음,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신뢰도 중요
 - 닐슨의 조사('24년)에 따르면, 스위스는 유통망 내 PB상품의 점유율이 매출액(value) 기준 52%('23년 51.9%)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차지
 - 일반적으로 PB상품은 일반브랜드(NB, National Brand) 상품 대비 판매가격이 낮지만, 스위스의 경우 차이가 근소함. 이는 스위스의 PB 상품이 가격 경쟁력만을 내세우지 않음을 반증
 - * (PB상품-일반 브랜드 가격 차이 예시)
 - (스위스) B사 스파게티면 5.2프랑/kg, PB브랜드 스파게티면 5.6프랑/kg
 - (벨기에) B사 스파게티면 4.98유로/kg, PB브랜드 스파게티면 1.98유로/kg
 - 스위스소매업자협회(SRA, Swiss Retail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는 상품의 질, 프리미엄 특히 중요시, 상대적 프리미엄 자국 유통망이 글로벌 저가 유통망보다 훨씬 우세
 - * (스위스 유통망 점유율) 자국 프리미엄 유통망 Migros, Coop 2개사 점유율 합 약 70%를 차지하고 그외에 자국 저가 유통망 Denner, 글로벌 저가 유통망 Lidl, Aldi 순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뷰티) 품목별 특화된 진출전략 수립, 규제·인증 주의
 - (스킨케어·바디케어) 한국산 스킨·바디케어 제품 수입이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며 인지도 상승. 저자국·기능성·클린뷰티 중심의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유기농·비건·더마테스트 인증 확보로 신뢰성 강화
 - (메이크업) 하이브리드 기능 제품과 내추럴 톤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군 구성 요구. 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체험 기반 마케팅과 색조 제품의 현지화 전략 필요
 - (향수) 니치·프리미엄 향수 시장 확대에 따라 독창적인 콘셉트와 스토리텔링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 지속가능 원료와 리필형 패키지 적용을 통해 친환경 이미지 강화
 - (뷰티디바이스) 고기능 홈케어 뷰티디바이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며, AI·앱 연동 및 맞춤형 진단 기능이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함. 스위스 시장 유통 시 현지 전압·플러그 규격 및 CE 마크 등 안전 인증 준수가 필수이며, '21년 8월 개정된 스위스-EU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스위스 내 공인대리인 (CH-REP) 지정과 CHRN(스위스 고유 등록번호) 발급이 의무화됨
 - * 스위스 인증서는 EU 지역에서 상호 인정되지 않음
- (유통 채널) 스위스 소비자는 품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현지 리테일러, 드럭스토어 및 전문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중요

※ 규제·인증 유의사항

- 스위스는 EU 화장품 규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성분 안전성, 라벨 표기, 영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1개 이상 병기 등 필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효능·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과장광고 규제가 엄격하므로, 모든 마케팅 표현은 임상데이터 및 시험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에서 획득한 기존 인증뿐만 아니라 유럽 현지 민간 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정보(예 : 독일 Dermatest의 민감성·안전성 테스트 통과, 스위스 V-Label 비건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참고로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청(FSVO)은 “피부 장벽 강화”, “탄력 개선”과 같은 효능을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표시할 때 별도의 허가나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진실성, 증거적 뒷받침, 정직성 등 관련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소비자 테스트, 과학 논문 등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규제 당국(FSVO)이 사후 점검 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 (식품) 오프라인 중심, 스위스 식품법 및 EU 규정에 따른 라벨링, 안전 기준 충족
 - 스위스 뷰티 유통은 쿵(Coop)·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망 중심 구조로, 이들에 납품하는 2차 벤더 공략이 효과적임. KOTRA를 통한 시장성 평가 및 벤더 관심도 파악이 가능하며,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코로나19 시기에도 전통 오프라인 매장 선호가 강했으나, 온라인 채널 비중이 점차 확대 중임. 주요 플랫폼은 쿵앳홈(Coop@home), 미그로(Migros)의 르숍(LeShop.ch)이며, 우버이츠(Uber Eats), 잇(Eat.ch) 등이 간편식 배송을, 헬로프레시(HelloFresh)는 식사 키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기를 얻고 있음
 - 스위스 식품법과 EU 규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스위스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식품으로 분류 시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청(FSVO)의 승인 필요. 유기농 제품은 반드시 Bio Suisse 기준을 충족해야 함



화장품

선정사유

- K-팝·K-드라마 인기로 K-뷰티 관심 급증, 수출 기회 확대
- EU 직수출 시 CPNP 인증 필수 → 초보 기업 시간·비용 부담 가중
- 스위스 테스트베드
 - CPNP 의무 없음, 고소득·다언어 시장
 - 스위스서 검증 시 독·불·이탈리아어권 EU 시장 확장 용이

경쟁동향

- '24년 주요 수입 대상국(백만 달러)
 - 독일 501, 프랑스 296, 이탈리아 175
- 시장 주요 업체
 - 라프레리(La Prairie), 유세린(Eucerin), 로레알(L'Oréal), 클리닉(Clinique), 벨레다(Weleda), 라로슈포제(La Roche-Posay), 니베아(Nivea), 에스티로더(Estée Lauder)
- 핵심 트렌드
 - 항노화·고기능·저자극 스킨케어 수요 확대
 - 과학 기반 더모코스메틱 관심 증대
 - 클린뷰티·지속가능 포장 전환 가속

진출방안

- 스위스는 CPNP 인증 의무가 없으나, 유럽과의 연계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EU 및 글로벌 표준 인증 선취득(스위스 V-Label 비건, 독일 Dermatest 민감성·안정성 테스트 등)으로 바이어 신뢰·확장 기반 마련
- 재활용·바이오 기반 친환경 포장재, 리필 시스템 도입
-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현지 K-Beauty 전문 리테일러, 드럭스토어 및 전문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필요
- 프리미엄 제품은 원료, 기능성, 스토리 차별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중저가 제품은 가성비, 대용량, 멀티 기능성을 강조
- 효능·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과장광고 규제가 엄격하므로, 모든 마케팅 표현은 임상데이터 및 시험 결과 기반해야 함. 규제 당국(FSVO)이 사후 점검 시 요청할 경우 제출 필요

스마트 노인 돌봄 로봇

- 선정사유**
- 65세 이상 인구 비중 확대 → '40년 약 26% 예상, 요양원·홈케어 서비스 수요 급증
 - 인력난·인건비 부담 가중 → 요양원 운영비의 75~80% 차지
 - 가정 돌봄 서비스 : 37만 명 이용, 65세 이상 70% 이상
 - 요양원 : 80세 이상 15% 거주, 4분의 3이 여성
 - 요양원 간병인 행정 과부하 → 환자 직접 돌봄 시간 부족
 - 스위스 정부 정책 : 'VIA 프로젝트' 추진 → 신체 활동, 낙상 예방, 정신 건강 관리 지원으로 노인 자립 생활 촉진
 - 스위스 테스트베드
 - 스위스서 검증 시 독·불·이탈리아어권 EU 시장 확장 용이
- 경쟁동향**
- 현재 스위스 시장은 주요 글로벌 로봇 업체와 일부 현지 스타트업이 경쟁 중이나, 현지에서는 대규모 확산 단계는 아님
 - 시장 주요 업체
 - SoftBank Robotics(정서 돌봄 로봇), PARO Robots(반려 로봇), F&P Robotics(돌봄 보조 로봇), Scewo(전동 계단 주행 휠체어), SoftBank Robotics(정서 돌봄 로봇), MyoSwiss (근력 보조 웨어러블 슈트)
 - 핵심 고려 요인
 - 안전성 : 낙상·충돌 방지 기능 필수.
 - 비용 : 초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투자 가치 입증 필요
 - 변화 관리 : 간병인의 IT 역량 부족 → 교육·훈련 체계 필요
 - 소비자/가족 인식:
 - 품질 기준은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 강함
 - 로봇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설득 필요
- 진출방안**
- 현지 전문 로봇 유통사와 협력 → 서비스 현지화 및 고객 접점 강화
 - 요양원·재활센터·Spitex(방문간호)와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 비용 절감·간호 품질 개선 효과 검증
 - 단순 케어 로봇에서 확장 → 청소·소독·환자 리프트·복약 관리·스케줄링 등 통합 돌봄 플랫폼 제공

웰빙 안마 의자

- 선정사유**
- 40~60대의 경제력 있는 층과 스트레스가 많은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
 - 홈 헬스케어 수요 증가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집중근무 확산 →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헬스·릴렉스 기기 수요 확대
 - 관광·스파 산업 발달 : 고급 호텔·리조트·스파가 글로벌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 → 마사지 의자 B2B 설치 가능성 큼. 2030년에는 USD 46.9십억까지 증가 예상됨(CAGR 약 12.2%)
- 경쟁동향**
- 시장 주요 업체
 - 파나소닉(Panasonic), Casada(카사다), 코모더(Komoder), 오심(Osim), 세라젬(Ceragem), 바디프랜드(Bodyfriend), 오코(OHCO), 휴테크(Hutech)
 - 핵심 트렌드
 - 제품 디자인 및 인테리어 부합성(고급 가족 마감 디자인 등)
 - 예방 헬스케어 기반 고령화+웰빙 트렌드 강화
 - 차별화된 스마트 기능 선호(온열, 자동체형감지,무중력 등)
 - 3년 무상 보증, 현장 방문 수리 등 A/S 보장과 품질 기대
- 진출방안**
- 직영점 운영, 쇼룸을 스위스 소비자 접점으로 활용
 - 현지 전문 유통사 제휴
 - Galaxus(현지 최대 온라인 이커머스) 등 통한 접근성 확대, EU 물류창고 활용 배송 최적화
 - 렌탈/리스 프로그램 도입 → 고가 제품 부담 완화를 위해 B2B(웰니스·호텔·기업 복지) 대상 단기 임대부터 확장 검토
 - 현지 물리치료사·재활 전문가 의견, 임상시험 데이터 기반 신뢰성 확보

F&B

- 선정사유**
-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 성공에 힘입어 K-Food 인지도가 스위스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라면·김치·소스 카테고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특히 '건강한 아시안 음식'으로서 인식
 - 스위스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다양한 음식 문화에 개방적임. 특히 20~30대 소비자층은 아시안 푸드·퓨전 메뉴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스위스 소비자는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특별한 스토리, 클린라벨, 웰빙 요소를 갖춘 제품에는 지불 의사가 높아, K-Food의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적합

경쟁동향

- '24년 주요 수입 대상국(백만 달러)
 - 이탈리아 1.389, 독일 1.317, 프랑스 1.013
- 시장 주요 업체
 - 네슬레(Nestlé), 미그로스(Migros), 코옵(Coop), 유니레버(Unilever), 다농(Danone), 엠미(Emmi), 리벨라(Rivella), 벨 푸드 그룹(Bell Food Group)
- 핵심 트렌드
 - 건강·웰빙 지향 : 고단백, 저당,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발효식품 인기
 - 클린라벨·투명성 : Non-GMO(비유전자변형), 저첨가, 알레르겐 표시 강화
 - 비건·플랜트 베이스드 : 대체육, 식물성 음료·소스 수요 증가
 - 즉석조리·RTD 음료·소포장 제품 선호
 - 에스닉·퓨전 식품 수용성 증가 : 아시아인 라면, 소스, 김치 등 대중화

진출방안

- PB(자체상표)와 단순 가격경쟁이 아닌, 전통+혁신 스토리로 차별화
- 한방 원료, 기능성 성분은 EU·스위스 Novel Food 규제에 걸릴 수 있음 → 사전 검증
- 제품 표시 언어는 판매 지역에 맞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사용 원칙(영어 병기 가능)
- 상온 보관이 가능한 소포장 핵심 SKU를 활용해 온라인·전문 유통망에서 초기 테스트 → 이후 Migros, Coop 등 대형 리테일로 확장
- 클린라벨·비건·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한류 스토리텔링과 온라인 유통을 결합해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구축



AI 기반 계약서 자동화 솔루션

- 선정사유**
- 스위스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법률·계약 자문 수요는 높지만 비용 부담이 큼
 - 로펌 비용은 시간당 CHF 250~500 수준으로 비용 절감형 자동화 솔루션의 매력이 큼
 - 다언어 사회(독·불·이탈리아·영어)로 다국어 계약서 자동화 서비스 수요 확대
 - 법률테크(LegalTech)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 자동화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시장 진입 여지가 큼
- 경쟁동향**
- 시장 주요 업체
 - DocuSign CLM(미국), Ironclad(미국), Contractbook(덴마크), Juro(영국) Legartis(스위스)
 - 고객 니즈 : 안전성(데이터 보호), 비용 효율성, 사용 편리성, 다언어 지원
 - 대다수 기업이 여전히 수작업 계약 관리에 의존, 대규모 상용화 전 단계로 초기 시장
- 진출방안**
- B2B SaaS 구독 모델로 중소기업 대상 월 정액 계약 자동화 서비스 제공
 - 현지 로펌과 회계법인과의 파트너십 통해 법률 검증과 인증을 결합해 신뢰도 확보
 - 데이터 보안·컴플라이언스 강조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스위스 개인정보보호법(FADP) 준수
 - 데이터의 스위스/유럽 내 저장 및 암호화 제공
 -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영어를 지원하는 다언어 현지화 솔루션 제공
 - 계약 작성부터 검토, 전자서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통합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 패키징 소재

- 선정사유**
- 스위스는 유럽 최고 수준의 재활용 정책과 환경 규제를 자율적으로 수용하며,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PPWR)와 유사한 고강도 기준을 적용 중
 - 식음료, 화장품, 제약, 고급 시계 등 고부가 가치 소비재 산업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적극 추진
 - 스위스 소비자의 환경 의식이 매우 높음 → 포장재의 재활용성, 생분해성, 원료 출처가 실제 구매로 이어짐
 - 스위스는 소규모지만 매우 까다로운 소비자층과 높은 기술 기준을 가진 시장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통과된 제품은 유럽 전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상징성을 가짐

경쟁동향

- '24년 주요 수입 대상국(백만 달러)
 - 독일 356, 이탈리아 98, 오스트리아 78
- 시장 주요 업체
 - 에코프렌드(Ecofriend GmbH), 사팔(Sapal SA), 패트로플라스트 비노라(Petroplast Vinora AG), BVS 포장 시스템(BVS Verpackungs-Systeme AG), 바이어 패키징 솔루션(Bio Packaging Solutions), 셸링(Schelling AG)
- 핵심 트렌드
 - 포장재의 설계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까지 지속가능성 구조 강화
 - 음식 접촉 포장 관련 화학물질(BPA, 비스페놀 계열) 제한 강화
 - PET 병 회수 및 재제조, 리필 가능 용기, 다회용 패키징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됨.

진출방안

-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PPWR) 기준을 수용하고 '27년부터 시행될 포장재 전반에 생산자책임(EPR)과 재활용 설계 기준이 강화된 VerpV 개정안을 사전 검토
- EU 인증(FSC, TUV, OK Compost 등) 및 재활용 설계(recyclability), 재생원료(r-content) 사용 내역 등을 확보
- 현지 유통사·가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전시·시제품 테스트 방식 시도



'26년 스위스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바이오 헬스	한-스위스 바이오 헬스 파트너십	5월 4일~5일/Basel
	유럽 의료기기 사절단	상반기/Zurich
에너지	한-스위스 에너지 파트너십	하반기/Zurich
첨단산업	스위스 첨단산업 GP(Global Partnering)	연중
	해외지사화사업	
소비재	Fantasy Basel 연계 K-소비재 쇼케이스	5월 14일~16일/Basel
	Zurich Popcon 연계 K-소비재 쇼케이스	9월/Zurich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국민투표	3월 8일, 6월 14일, 9월 27일, 11월 29일	
연방 평의회 회의	1월 27일~1월 31, 4월 7일~4월 11일, 6월 23일~6월 27일, 9월 29일~10월 3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	12월 9일	7명의 연방 평의회 각료 중 매년 윤번제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연방예산안 발표	2025년 8월 21일	연방정부 수입·지출과 '27~'29년 계획 포함; '26년 적자 예산 (845 백만 스위스 프랑) 예상
전기 시장에 대한 감독 및 투명성 법률 시행	연 중 시행 예정	전력 및 가스 도매 시장 투명성·보고의무 강화, 시장 남용 방지 조치 포함
스위스-EU 간 전력 협정 의회 승인 절차	연 초	EU 내부 전력 시장과의 통합을 위한 조치로 국민투표 가능성 있으며, 민간·기업 사용자에게 선택권 확대 등 포함
스위스-EU 무역 협정 패키지 협의	2026년 1분기 경	임금 보호, 전력, 이민 등 주요 분야 포함. 국민투표 여부 및 시기 결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구분	주요 행사	일시(잠정)	지역
에너지	스위스 GPPS 에너지 및 항공 포럼 (GPPS Energy & Aviation Forum 2026)	1월 14~15일	취리히
경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2026)	1월 19~23일	다보스
서비스, ESG	취리히 지속가능성 및 혁신 포럼 (Z-Forum on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1월 15~16일	취리히
건축·건설	스위스 바우 건축 박람회 (Swissbau 2026)	1월 20~23일	바젤
기계·소비재	스위스 국제 발명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of Geneva)	3월 11~15일	제네바
서비스	스위스 국제무역포럼 (International Trade Forum 2026)	4월 23일	취리히
에너지	스위스 에너지 혁신 포럼 (Innovation Forum Energy 2026)	4월 23~24일	취리히
기계·자동화	취리히 월드 AI·자동화·테크놀로지 포럼 (Innovate 2026 : World AI, Automation and Technology Forum)	4월 27~29일	취리히
바이오헬스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Swiss Biotech Day 2026)	5월 4~5일	바젤
소비재·문화	스위스 판타지 바젤 (Fantasy Basel-The Swiss Comic Con 2026)	5월 14~16일	바젤
기계·장비	바젤 퓨처랩스 라이브 (Future Labs Live Basel 2026)	5월 27~28일	바젤
기계·장비	유럽 비즈니스 항공 전시회 (European Business Aviation Convention & Exhibition)	5월 27~29일	제네바
바이오 헬스	스위스 메드텍 데이 (Swiss Medtech Day 2026)	미정	베른
광학·정밀기계	스위스 고정밀 산업 박람회 (EPHJ - The World of High Precision)	6월 16~19일	제네바
에너지	제3회 세계 재생에너지 및 비재생에너지 정상회의 (3 rd World Summit and Expo on Renewable and Non-Renewable Energy(WSERNRE 2026))	6월 22~24일	베른

구분	주요 행사	일시(잠정)	지역
에너지	유럽 연료전지 포럼 (European Fuel Cell Forum 2026)	6월 30일~7월 3일	루체른
AI·ICT	AI 포 굿 글로벌 서밋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	7월 7~10일	제네바
기계·자동화	물류 및 자동화 박람회 (Logistics & Automation 2026)	미정	베른
화학·바이오	일맥 화학·생명과학 박람회 (Ilmac Lausanne 2026)	9월 23~24일	로잔
소비재·문화	취리히 팝콘 (Zurich Pop Con & Game Show 2026)	9월 26~27일	취리히
서비스, ESG	스위스 바젤 지속가능성 데이 (Sustainability Days 2026)	미정	바젤
바이오 헬스	국제 헬스케어 무역박람회 (IFAS-International Trade Fair for Health Care)	10월 20~22일	취리히
기계·자동화	스위스 산업 자동화 박람회 (Swiss Trade Fair for Industrial Automation 2026)	8월 31일~9월 2일	베른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창석	차장	취리히무역관	+41-44-503-53-02	cskim@kotra.or.kr
2	서현진	대리	취리히무역관	+41-44-503-53-11	hj.seo@kotra.or.kr
3	신순재	박사	취리히무역관	+41-44-503-53-09	soonjae.shin@kotra.or.kr
4	안세영	대리	취리히무역관	+41-44-503-53-06	seyyoung.ah@kotra.or.kr

2026 스위스 진출전략



ISBN : 979-11-402-1499-0 (95320)